

| final

증인

각본 | 문지원

각색 | 이한, 홍용호

감독 | 이한

제작 | (주)무비락, (주)도서관옆스튜디오

1. 고등학교 (낮 * 크레딧 타이틀 백)

암흑에서 학생을 부르는 선생님의 소리가 들린다.

소리 자 누가 읽어볼까. 음. 우리 임지우 학생이 해볼까?

임지도 않았는데 벌써 웅성, 키득거리는 소리.
화면 밝아지면 아이들 사이에서 지우가 쑥 올라온다.

선생님 조용!

지우의 목소리는 악센트가 없고 고저가 적은 단조로운 목소리다.

지우 윤동주, 눈...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발이랑 추워한다고 덮어 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아이들은 표정과 감정이 없는 듯 시를 읽는 임지우(고1, 여)의 목소리와
모습을 키득거리며 보고 있다.
지우는 아스퍼거 증후군(자폐스펙트럼 장애)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 어 지우 잘 했어 앉아.
지우 (자리에 앉는다.) 눈이... 덮어주는 이불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눈을 덮으면 춥습니다. 눈. 싫습니다.

아이들. 웃음이 터지는데 지우는 표정 없는 얼굴로 중얼거린다.

-사이-

수업시간

학생들 모두 칠판 쪽을 향하고 있는데 혼자 창문 앞에 서 있는 지우.
익숙한 듯 선생님이 제지하지 않는다.
창밖에 매미가 붙어있다. 매미가 창밖에서 아주 조그맣게 소리를 내고 있다.
매미가 울자 창 안쪽에는 조그맣게 들리는데도 놀란 듯 귀를 막는 지우.

-사이-

점심시간. 특유의 종종 걸음으로 복도를 뛰 듯 걸어 나가는 지우.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고 길을 비켜준다.
모두들 나가서 노는 교실 안. 지우는 혼자다.
파란색 젤리를 집어 햇빛에 비춰 보고는 먹는다.
몸을 흔들며 교과서를 보는 지우의 눈에는 감정이 없는 것처럼 텅 비어 보인다.

2. 지우의 방 (새벽)

이른 새벽, 지우 동네에는 지우의 방에만 불이 켜져 있다.
자폐아의 취향에 맞게 꾸며진 방.
한쪽 2층 침대는 아래쪽을 커튼처럼 막아 놓았다. (혹은 텐트 같은 것)
그 안 지우가 태블릿 PC로 만화 보노보노를 보고 있다.
만화 캐릭터의 목소리를 기다렸다는 듯 똑같이 따라하는 지우.

태블릿의 화면이 멈추고 버퍼링이 시작된다.

지우 어. 어. 멈추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태블릿을 두드리는 지우.
순간 창 밖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
작은 소리지만 크게 반응하는 지우, 창문을 연다.
소리가 난 곳은 가운데 30m 정도 떨어진 단독주택.
지우 집 쪽으로 향한 창문이 열리더니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쓴
누군가(김은택, 80세, 남자)가 창문 밖으로 손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기괴하다.

지우 ... 어 ... 어... (눈이 커진다)

곧 40대 중반의 여인(43세, 오미란)이 뒤에서 쑥 하고 나타나 허우적거리는
은택의 손을 잡고는 실랑이를 벌인다.
비닐봉지를 벗기려는 건지 벗으려는 것을 제지 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미란 (아주 작은 소리 들릴 듯 말듯) 영감님. 왜 이러세요?!
영감님...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데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광경을 보던 지우, 숨이 거칠어지더니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며
방안을 뛰어 다닌다.

지우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지우의 몸이 가구의 여기저기에 부딪혀 물건들이 우르르 떨어진다.
지우의 부모 **장현정**(40세, 여)과 **임성태**(40세, 남)가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현정 지우야. 왜!

현정이 지우를 감싸 안아 바닥에 주저앉히며 뒤에서 강하게 안는다.
지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진정되고

지우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창 밖에 시선을 두면)

성태, 창밖을 보면 은택의 깨진 창문 너머 서 있는
미란의 실루엣이 보인다.
“아~ 악!!!~ ” 미란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작게 동네에 울려 퍼진다.
미란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새들이 날아가고 개들이 짖기 시작한다.

미란 영감님~ !!

미란의 소리에 주변 집의 불 몇 개가 켜지는 것이 보인다.
지우의 방 창이 밖에서 보이고
작은 하천을 사이에 둔 지우의 집과 은택의 집이 한 화면에 보인다.
새 몇 마리가 날고 있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마을의 새벽 풍경이다.

-디졸브-

똑같은 구도에서 은택의 집 앞에 경찰차, 경찰, 동네 주민들이 몰려든 모습.
화면 서서히 어두워지고 타이틀이 떠오른다.

타이틀 **증인**

3. 광화문 광장 (오전)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는 남자의 뒷모습.

양복에 넥타이를 하지 않고 백팩, 한 손엔 빵 봉지를 들고 통화하며 걸어오고 있다.

순호 아버지. 도우미 아줌마 두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싫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끊었다.) 후...

자기가 탈 버스를 발견하고 뛰는 순호.

4. 버스 안 (오전) 광화문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목으로 고정한 채 변론 요지서를 검토하는 순호.
펜으로 잘못된 곳, 오자들을 체크한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다.

순호 안녕하세요. 리앤유 양순호 변호합니다. 전무님이 연락이
 안돼서요. 변론요지서 맞춤법을 지적해 주셨는데
 파이널 단계에서 할 거니까 내용 위주로 봐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하며 버스 밖 풍경들을 본다.

걸리는지 목을 뒤로 크게 젖혀 스트레칭을 하는 순호.

5. 성동 구치소(오전)

넥타이를 매며 구치소로 들어가던 순호, 일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잠시 뒤돌아 보다 걸음을 옮긴다.

-사이-

구치소 정문 입구로 들어가는 순호.

6. 구치소 안 VIP 접견실. (오전)

수의 사이로 온몸 문신이 보이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접견실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순호는 창밖 뽕죽하고 앙상한 나무가 구치소 벽에 만들어 낸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순호, 멍하니 바라보다 허리가 아픈 듯 얼굴을 찡그리고 허리를 편다.

순호는 자신의 의뢰인과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 온 것이다.

문신남, 맛있게 맘모스 빵을 먹고 있다.

문신남 거 옛날 맛이 안나네... (그러면서 우걱우걱) 요 잼이 문제여.
단맛만 나니께...

순호 (창밖 보고 있다. 잡생각)...

문신남 집행유예 확실한 거지요?

순호 ... 아마. 그럴 겁니다.

문신남 그려야지 꼭 그렇게 돼야지. 내가 준 돈이 벤츠하고도
6 시리즈인디...

순호 ... (무례한 문신남에 대한 표정을 감추느라 애쓴다.)

문신남 변호사 양반. 좀 앉아보쇼. 얘기 좀 합시다.

순호 ... (의자에 앉고)

문신남 내가 말한 주식 샀어요?

순호 아니요.

문신남 거 생각해서 알려줬더라 사람 말을 못 믿어. 바짝 올랐는데.

순호 여윳돈이 없어서...

문신남 리앤유 변호사면 연봉이 세지 않나? 젤로 잘 나가는 로펌 아니요.

순호 연봉 쉰 건 파트너 변호사일 때구요. 전 들어간 지 얼마 안돼요.

문신남 아... (출입문 앞에 뒷모습으로 보이는 경찰을 살피고 작은 소리로)
나 원래는 몇 년 정도 받는 거요?

순호 네?

문신남 우리 사이니까... 내 정말 궁금해서 그래.
그래야 돈 아깝다는 생각도 안들 것이고...

순호 (자존심이 상한다) ...

문신남 기분 나빠요?

순호 ...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된다.)

문신남 ...

순호 (얼굴 고치고)

아닙니다. 저라면 10년 구형하고 판결은 5년.

문신남 예고야... 얘기만 들어도 소름이...

순호 ...

문신남 집행유예만 받게 해주면 내 평생 은인으로 알고 뒤 봐 드릴 텐께
수고 좀 해주쇼.

순호 ... 노력하겠습니다.

문신남 그라지 거기 변호사가 할 일이지.

7. 화장실 안 (오전)

대변 칸에서 들리는 순호의 소리.

순호 아!!! 씨발!!! 아.....!!! 아악!!!

마침 들어오던 남자, 소리에 깜짝 놀라 바로 나간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대변 칸에서 나오는 순호.

넥타이를 풀며 화장실을 나간다.

8. 순호의 아파트 앞 (밤)

오래된 아파트 앞

술기운이 있는 순호가 우편통에 꽂혀 있는 고지서들을 빼서 집으로 들어간다.

9. 순호의 집 안 (밤)

남자 둘이 사는 집. 거실 가득 책을 빼고는 단출한 살림살이.

순호, 집으로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

베란다 쪽으로 가보는 순호. 귀신이 나타난다.

순호 (놀라서) 으아!

보면 아버지 **양길재**(70세. 파킨슨 중기. 순호부라고 표기)가 렌턴 빛을
얼굴에 대고 장난을 친 것.

순호부 으 흐흐흐... (아이처럼 좋아한다.)

순호 아. 진짜... 아버지... (아버지를 보고) 헛...

순호부 똥마려. (하며 자기 화장실로 아주 느릿느릿 걸어간다.)
참았어. 장난칠라고...

순호 사는 게 재밌으시죠?

순호부 (느릿 걸으며) 급해.

순호 (순호, 아버지를 업고 움직이는데)

순호부 아...

순호 왜요?

-사이-

순호, 목욕탕에 꾸그려 앉아. 아버지가 실례한 바지를 빨고 있는 순호.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tv를 보며 허허 웃고 있다.

-사이-

뉴스를 틀어 놓고 소파 앞에 나란히 앉아 있는 순호와 순호부.
막걸리를 마시는 부자. 순호가 케첩 뿌린 계란후라이를 순호부 입에
넣어준다.

순호 약 잘 드시고 있죠?
순호부 ...
순호 그 감태가 파킨슨에 좋다던데.
순호부 ... 니 걱정이냐 해. 어떻게 사십 육년 동안 여자 한명을 집에
안 데려와.
순호 (후라이 한 개를 통째로 입에 집어넣으며)
 결혼 안한다니까요. 늦었어요. 여유도 없고
순호부 사람들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
순호 ...
순호부 ... 남자라도 괜찮다 ... 사람이면 돼.
순호 ...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는데)
순호부 (그윽한 눈으로 허공을 보며) 사람은 혼자서 외로워. 너무...
순호 이제 그만하죠...
순호부 ... (말없이 편지봉투를 순호 앞에 놓는다. 순호, 봉투 안의 것을
 빠서 보면 여자 사진) 니 엄마도 나보다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등글 순한 인상) 4년제 나왔고
 동네 사는데 부모 심성이 고와... 뒤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있고.
순호 ... 어머니 닮았네요...
순호부 ... 그렇지? (거실에 부인 사진을 보고 금세 촉촉해지는 눈)
순호 에휴...

순호, TV의 뉴스 꼭지가 바뀌자 관심 있는 뉴스인 듯 리모콘을 들고 소리를 키운다.
다국적기업 씨앤에이의 생리대 소송 관련 뉴스이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으로 나선 **김수인**(여. 40대 중반)의 모습이 보인다.

수인(화면) 저희 민변의 주장은 씨앤에이 생리대의 유해성에 대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 추구를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이며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

TV속 자막 민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순호부 (수인을 보고) 낮이 익다...
순호 아버지 칠순 때 왔었어요.
순호부 아... 그 대학 친구... 이혼했다고 했었지?
순호 기억력 좋으시네요.
순호부 이혼녀도 괜찮다. 애만 없으면...
순호 딸이 이번에 중학교 들어갔어요.
순호부 음... (조용히 막걸리 한 모금을 한다.) 개를 키워볼까?
순호 ... (화면 속 수인의 모습을 가만히 본다.)

10. 리앤유 로펌 아침 풍경

한 눈에도 큰 규모의 로펌이다. 자기 방으로 가고 있는 순호.

직원1 (큰 소리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커지게 생겼습니까?
재판이 내일인데... 갑자기 증언을 못하겠다니요.
직원2 (영어로) 뉴욕은 늦은 시간일 텐데 미안합니다.
서류 하나가 빠져 있어서요.
서류 작성된 날짜와 시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빠져 있네요.

건물 중앙부 스텝들의 공간. 커피트레이를 옮기는 여직원과 인사를 하고
소송 서류의 정리를 맡은 송무팀 직원들이
두꺼운 서류들을 박스에 넣은 다음 그것들을 회의실 한 곳으로 옮기고 있다.
후배 변호사가 순호를 보고 빠른 걸음으로 온다.

후배변호사 (걸어가며) 양 변호사님. 제 사건. 일본 쪽 판례 알아보라고
조언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이런 게 있더라구요.
순호 (걸어가며 문서 보고) 이 판례면 확률이 높아지겠는데요?
후배변호사 감사합니다!
순호 무슨... 수고해요.

순호, 모퉁이를 돌아 리앤유 로고가 크게 빛나고 있는 복도로 들어간다.

11. 순호의 사무실

비서인 **김정연**(30세, 여)이 순호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정연 오셨어요? 변호사님.
순호 안녕하세요. (책상으로 가며) 제 책상은 제가 할게요. 제 일이에요.
정연 저 정리 좋아하는데. 할 일도 별로 없구요.
순호 능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했는데 어찌죠?
정연 리앤유에 아무나 들어오나요? 변호사님 유명해요.
 민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셨다고.
순호 (책상을 정리하며 씩씩한 웃음) 내가 그랬나?...
정연 아! 씨앤티에이 생리대 소송 모의법정이 1시간 당겨졌어요.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었대요.
순호 그래. 클라이언트가 법이다... 근데 난 담당도 아닌데 왜 부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연 들은 건데... 대표님이 변호사님 칭찬을 많이 하고 다니신대요.
순호 ...

12. 리앤유 로펌 회의실

이병우 자. 씨앤티에이 생리대 소송 모의법정을 시작해볼까요?

넓은 사무실에 십 수 명의 변호사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시뮬레이션(모의법정)을 위해 모여 있다. 순호만 커다란 수첩을 사용하고 있다.

그 맨 앞 피고인인 한국 씨앤티에이 대표 **이윤재**(40대 초반, 남)가 앉아 있고
피고인 바로 앞에는 리앤유의 대표 변호사인 **이병우**(61세, 남)가
이윤재 쪽으로 몸을 하고 서 있다.

이병우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재판이라 생각하시고...
 대표님. 재판이 낯설진 않으시죠?
이윤재 (하품을 하며 뼈뺏하게 앉아서) 꼭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알아서 해주면...
이병우 (말을 끊고, 카리스마) 자세를 이렇게 하세요. (자세를 바로 잡아준
 다) 허리 집어넣으시고... 사방에 눈이 많을 겁니다.
이윤재 (기분 나쁘지만 분위기에) ... (자세를 바로 한다)
이병우 시선은 조금 밑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윤재 이거 뭐 내가 학생이야?...

이병우 비아냥. 말대답... 안됩니다. 판사도 사람이에요.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윤재 (이병우의 단호함에 침을 꿀꺽 삼킨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이병우 (소리) 자. 공소장이 참 버라이어티하네요...
골치 좀 아프겠는데. 여러분... 이 사건에 회사 이름이 많이
오르내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순호. 순호 옆 여변호사가 흘깃 순호 수첩을 보면, “판사도 사람이다... 변호사는?”
이라고 적는 순호. 여변호사가 피식 웃는다.

이병우 자. 검찰은 씨앤티에이 생리대에 사용되는 폴리아크릴산
나트륨의 유해성을 대표님이 보고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할 겁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윤재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이병우 그런 확신에 찬 말투 좋습니다.

이윤재 (뿌듯한 표정)

이병우 압수수색 당하셨죠?

이윤재 네.

이병우 그 곳엔 대표님 사인이 있을 거구요. 위증죄가 추가 될 겁니다.

이윤재 ...

이병우 그래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윤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호 폼! (하고 웃음이 터진다)

순호에게 시선이 집중 된다. 이병우도 순호를 본다.

순호 (고개를 숙인다) ...

이병우 ... 양순호 변호사. 왜 웃죠?

순호 웃은 게 아니라. 사례가...

여변호사 폼... (웃음이 터지려 한다. 참는다) ...

이병우 양변호사.

순호 네...

이병우 양변호사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특별히 불렀어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민변이에요. 민변에 오래 계셨죠?

사람들의 시선이 순호에게 집중된다.

순호 네...

이병우 이 재판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순호 ...

이병우 (관찰한다) ...

순호 ... 이 사건으로 128명의 자궁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재판 전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지금 언론을 잘 막고 있는데 사건을 더 알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이윤재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여변호사 (이윤재의 대답에 웃음을 필사적으로 참는다)

이병우 ...

순호 ... 전문 경영인으로서 의료상식에 무지하다는 부분과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방패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 (씩 웃으며) 정답입니다. 민변이 정서에 호소를 한다면
우리는 팩트. 자. 대표님...

순호 ...

13. 리앤유 로펌 대표방 (밤)

스탠드 불빛만 있어 어두운 방.

입안 한가득 사과를 먹으며 서류들에 싸인을 하고 있는 이병우.

먹던 사과를 접시 놓으면 대충 먹은 사과 잔해가 여러 개 있다.

(반 혹은 조금 만 먹은)

여비서 양순호 변호사 오셨습니다.

순호 부르셨습니까?

-사이-

이병우 (사과를 먹으며) 양변 우리 로펌에 온지 얼마나 됐지?

순호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병우 우리 양변이 실력에 비해 큰 건이 별로 없지...
 지난번 명진그룹 상속세 건도 양변 덕분에 이겼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에이스 감인데...
 아직 클라이언트들이 어려워 한다는 얘기가 있어.

순호 ...

이병우 왜 그럴까?

순호 ...

이병우 아직 때가 덜 묻어서 그래. 말하다 보면 티가 나거든...
 우리 로펌에 올 정도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지.
 성공하려면 적당히 때를 묻혀야 해.
 그 때를 벗겨달라고 여기 오는 거고.
 근데. 때가 덜 묻은 사람은 불편한 거야.

순호 저 요즘 목욕탕 안 가고 있습니다.

이병우 헛... 그래 요즘 잘하고 있지. 변한 게 보여.
 본론부터 얘기하지. 자네를 회사 간판 변호사로 만들 생각이야.

순호 ...

순호에게 줄 자료를 찾으려고 일어나는 이병우, 책상에 걸터앉은 채로
 순호와 이야기 한다.

이병우 회사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 리앤유 하면 다들 기득권 톨마니로
 보지 않나.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양변 이미지가 딱 좋아. 민변 출신에 실력도 좋고.

순호 ...

이병우 그런 의미로 (탁자의 공소장을 순호에게 밀며)
 내가 국선무료변호를 하나 맡았는데 자네가 좀 도와줘.

순호 영광입니다. (공소장을 본다)

이병우 (사람 좋은 미소) 난 일단 생리대 소송에 집중해야 하니까.
 양변이 주도해서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공소장에는 서울북부지검 이희중. 죄명:살인 피고인:오미란 이라고 쓰여 있다.

순호 네. (공소장을 넘긴다) 비구폐색성 질식사...

이병우 간단히 말하면 검찰은 피고인인 가정부 오미란이 자살로 위장해서
 주인을 살해했다. 그러고 피고인은 자살하려는 주인을
 살리려고 한거다.

순호 피고가 현장에 있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네요?

이병우 역시 빨라.... 그게 목격자가 있어.
 물증 없이 목격자 증언만 믿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게 내 판단이고

순호 ... 목격자가 임.지.우. 만으로 열다섯. 어리네요.

이병우 거기다. 자폐아야.

순호 자폐...

이병우 이 사건 매스컴에서 관심이 많아. 키워드만 봐도 사망, 자폐,
 가정부... 자극적이잖아. 아. 그리고 TV법률 상담소라고 알지?

순호 예.

이병우 내가 양변 추천했으니 빠지 말고...

순호 ... 네.

이병우 (인터폰 누르고) 가지고 들어와.

비서, 고급 양복케이스를 세 개 들고 들어온다.
 양복케이스와 신발케이스까지 순호 앞에 놓고 나가는 비서.
 이병우, 신발케이스 위에 벤츠 키를 올려놓는다.

이병우 일이 많아 질 텐데 체력 아끼라고 주는 거야.

순호 저는 아직 대중교통이 편합니다.

이병우 회사차니까 부담 갖지 말고.

순호 (얼떨떨하다) ...

14. 순호 사무실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 새 양복의 상의를 입는 순호.

-사이-

선물로 받은 양복을 입고 가만히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순호.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마이크처럼 입 밑에 대고

순호 (인터뷰 연습) 안녕하세요. TV법률상담소의 변호사 양순호입니다.
 양순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양순호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연습하는데 어색해서 웃기다.
 이병우에게 받은 자동차 키를 서랍 속에 넣어두는 순호.

15. 구치소 여성 접견실 (내부, 낮)

오미란을 만나기 위해 접견실로 연결된 구치소 사이를 지나는 순호.
출정대기실 문 안 쪽에서 나오고 있는 오미란과 구치소 직원.

-사이-

순호가 접견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
수의를 입은 평범하고 순박해 보이는 피고인 오미란이 들어온다.

순호 오미란씨? 이번에 변호를 맡은 양순호라고 합니다.
미란 네. 선생님... 지를 위해서 무료변론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해요...

순호를 보자 서러운 게 훅 올라왔는지 눈물이 고인다. 황급히 닦아낸다.

미란 죄송해요... 여기 있을께 별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순호 (서류들과 수첩을 꺼내며 사무적으로)
 우선 얘기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주시겠습니까?
미란 암요. 한 가지 아니라 백 가지 천 가지라도 들어 드려야죠잉.
 저를 도와주려 오신 분이잖아요. 맞죠잉?
순호 (잠시 미란을 본다)... 네. 맞습니다. 제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됩니다.
 거짓말을 하시면 제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미란 네. 네... 걱정하덜 마세요. 내. 믿는 건 변호사님 뿐인께요.

말을 하는 미란을 유심히 본다. 자신을 보는 미란의 눈. 오랜 부엌일로 튼 손.

순호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 일단 그 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은택 씨가 사망한 날이요.

떠올리기 괴로운 듯, 미란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미란 잘라고 누웠는데... 어디서 꼭. 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16. 김은택의 집. 미란의 방 (미란의 회상, 모노톤, 새벽)

꼭꼭 소리가 들려오는 새벽빛에 어스름 한 방 안.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미란이 부스스 일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미란(소리) 나가봤죠. 영감님이 어디가 없혀서 그러나 싶어서.

미란이 밖으로 나간다.

17. 김은택 집 거실(새벽)

조심히 은택의 방문에 귀를 대어 보는 미란.

순호(소리) 김은택씨 가정부로 일하신지는 얼마나...

미란(소리) 벌써 십년이 다 되가네요. 잉.

미란 영감님 어디 아프세요?

대답 없이 끁끁 소리만 나자 걱정되어 문을 여는 미란.

18. 김은택의 방 (새벽)

미란, 은택의 모습에 놀란다.

방안에는 부탄가스, 위스키 병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은색 테이프를 목에 여러 겹 감은 은택이

숨이 막혀 끁끁 거리면서도 자기 목을 조르고 있다.

숨을 들이 쉴 때마다 입을 크게 벌린 은택의 얼굴 윤곽이 비닐 위로 드러난다.

미란 머 하는 짓이요!

미란, 재빨리 달려가 은택의 손을 잡아 떼려한다.

은택, 소리를 지르며 미란을 밀친다.

미란, 은택 머리에 봉지를 잡아 찢으려 하지만 팔다리를 마구 휘두르며

저항하는 은택.

은택이 몸을 반대쪽으로 하려다가 옷걸이를 잡고 함께 넘어진다.

옷걸이가 창문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진다.

비닐봉지를 벗기려 실랑이를 벌이는 미란.

미란 영감님. 왜 이라요?! 정신 차려요.

미란(소리) 죽을 결심을 하니 젖 먹던 힘이 솟는지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갖고 와서 비닐을 확 찢어야겠다. 생각했죠.

은택, 계속 팔다리를 거세게 휘두르고 있다.
미란, 당혹스런 얼굴로 방 밖으로 나간다.

-거실- (미란의 회상)

거실로 나와 가위를 찾던 미란의 눈이 어딘가에 멈춘다.

미란(소리) 그랬더니 딱 가위가 보여요.

미란이 싱크대 위에 놓인 가위를 들고 다시 은택의 방으로 간다.

-방- (회상)

창가에 있던 은택이 미란이 다가오자 벗어나려 하다 바닥으로 넘어진다.
창가의 미란이 멈칫한다.
바닥에 누운 은택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있다.
은택 얼굴에 찰싹 들러붙어 얼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비닐봉지가
은택의 짧고 거친 호흡에 맞춰 입부분이 부풀었다 꺼졌다 반복한다.

미란 (비명 썬 2에서 들렸던) 아악!!!

그 모습에 얼음처럼 굳어있는 미란.

미란 (정신 차리고 은택을 흔들며) 영감님!!! 영감님!!!

미란(소리) 하나님 아버지. 그 꼴이 무서워 그랜능가 몸이 움짱 달싹을 안해요.

은택의 경련이 멈추고 입에 딱 붙어 있던 비닐봉지가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

19. 구치소 여성 접견실 (내부, 낮)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순호가 휴지를 찾자 수의로 쓱 닦아내는 미란.

미란 그게. 혼이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순호 네?
 미란 그 봉지가 서억 부푸는 거요.
 순호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란 지 잘못이유. 지가 그때 정신만 똑 바로 차렸어도...
 순호 ... 혹시 김은택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미란 2년 전 부인 먼저 보내고 나서 만날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 였으께...
 순호 ... (수첩에 중요한 것들을 적는다)
 미란 선생님. 지가 영감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괴팍스럽기는 해도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밥줄을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순호 ... (생각난 것들을 적는다)
 미란 ... 선생님. 돼지 두루치기 좋아해요?
 순호 네?
 미란 내가 딴 건 그저 그래도 돼지두루치기 하나는 괜찮게 해요.
 (수줍은 미소) 나는 뭐 양념에 재고 그런 거 안해요.
 후라이팬부터 뜨겁게 달궜서 콩기름에 설탕 마늘 넣고 사악 지져요,
 그때 앞다리 살 넣고 고춧가루 넣고 별절게...
 순호 맛있겠네요.

미란이 순호의 손을 덥석 잡는다.

미란 내가 애쓰는 우리 선생님 돈을 못 해드려도...
 돼지 두루치기는 한번 맛있게 해드릴게요.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미란이 순호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는다.
 순호의 손에 구깃거리는 포장지의 알사탕이 놓여있다.

20. 순호의 사무실 (늦은 오후)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순호.

정연 김은택 씨 아드님 연락됐는데 만나시겠대요.
 순호 (책상에 앉으며) 오, 잘됐네요.
 순호 검찰 측 증인 영상은요?
 정연 컴퓨터에 옮겨놨어요.

-사이-

순호, 검찰 측 증인 영상을 열면 임지우의 모습이 보인다.

검사(남자, 소리) 자. 임지우 양. 임지우 양.

지우, 상체를 시계추처럼 좌우로 흔들고 있다.

지우, 자신을 부르는데도 이곳저곳 산만하게 고개를 돌리며 보고 있다.

검사(소리) 임지우양?

지우(화면속)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고) 구름이다.
강아지 놀겠다. (나가서 놀고 싶다는 뜻)

검사(소리)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카메라 보고요.

지우(화면속) (고개를 확 돌려 카메라를 본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카메라 보고요. 고현고등학교 일학년. 임지우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말하는 것 같다.)

순호 헛... 애가 증인이라고? 지금 장난해?

정연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순호 (정연을 보면) ...

정연 누가 그 애 말을 믿겠어요. 서당개 삼년... (귀여운 표정으로) 멍멍!

순호 ...

정연 ... 꼬리친 거 아니에요.

순호 ...

정연 ... 꼬리친 것 같네.

지우의 증언 영상이 보이는 컴퓨터에 순호의 얼굴이 비쳐 한 화면에 보인다.

순호, 미란이 준 알사탕을 입에 넣어 오물거린다.

21. 지우 동네 부동산 앞 (낮)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순호.

부동산 앞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간다.

순호 저 실례하겠습니다. 집을 찾고 있는데요.

부동산 업자 (순호를 쳐다본다)...

순호가 부동산 업자에게 핸드폰을 보여준다.

부동산 업자 (걸어서 손으로 가리키며) 저 집인데... 그 집은 왜 가요?

순호 네?
 부동산 업자 사람 죽은 집 아니요.
 순호 그 집 사시는 분들 아세요?
 부동산 업자 ... 그럼요. 동네가 좁아서 ...
 순호 그 집에서 일하던 오미란 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업자 변호사면 미란씨 도와주는 분이시네.
 미란씨 그럴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끔찍이 여겼다고.
 부인도 그렇게 못해.
 그 정신도 온전치 못한 애 말만 믿고 잡아넣는 게 어딴?
 순호 ... 명함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업자 (명함 내밀며) 연락줘요. 증언이라도 하려면 할 테니까.
 내가 법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야.
 순호 네?
 부동산 업자 많이 왔다 갔다... 친해 아주....
 순호 아. 네. 감사합니다.

22. 사건 현장 김은택 집 앞 (낮)

만호 비서가 검은색 그랜저 안에서 순호를 기다리고 있다.
 순호가 은택 집 쪽으로 걸어오자 차에서 내리는 만호 비서.

만호비서 양순호 변호사님?
 순호 네.
 만호비서 사장님.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열린 문으로 집 외부를 살피며 걸어가는 순호.

23. 김은택 집 내부 (낮)

거실에 있는 액자를 떼고 있는 김은택의 아들 김만호(51세, 남)가 유리창으로 보인다.

은택의 방이 열린 채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그 배경으로 소파에 앉는 두 사람.
 명함을 주고받는 두 사람. “김만호 회계법인 태화 대표”

만호 마실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순호 아유. 괜찮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호 아버지 사진 가져갈 겸 해서... 집에 큰 사진이 없어요.

순호 ...
 만호 아버지가 가족사진 찍자고 그렇게 졸라 대셨어요.
 귀찮아서... 핑계를 댔는데. 한이 되네요... (울컥하는 것을 참는다)
 순호 조심스런 부탁인데요. 혹 오미란 씨를 돕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호 (단호하게) 없습니다.
 순호 ...
 만호 검찰이 구속을 결정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호 ...
 만호 대신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면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미란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구요.
 아버님의 병력도 그렇고...
 만호 사람을 믿으시나 봐요...
 슬픈 애긴데 회계사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숫자,
 자료 이런 걸 더 믿게 되요. 사람보다. 사람은 늘 변하잖아요.
 순호 ...
 만호 제가 원하는 건 진실...입니다.
 순호 ... 시간이 없으실 테니 (수첩을 들고)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만호 네. 얼마든지요.

-사이- 집 앞

부모님의 사진이 든 큰 액자를 들고 집을 나서는 만호.
 양복의 남자(비서)가 얼른 달려와 받아 든다.

순호 실례지만 저는 더 있다가 가도 될까요? 현장을 좀 더 보고 싶어서요.
 만호 ... 그렇게 하시죠.

-사이-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은택의 방으로 간다.
 먼지와 함께 죽은 은택을 그린 표식만 있다.
 깨진 유리창 앞으로 간다. 깨진 유리창으로 지우의 집을 오래 본다.

24. 지우의 집 앞 (낮)

깨진 유리창이 보이는 은택의 방을 배경으로 은택과 지우의 집 사이 작은 하천을
 돌다리를 이용해서 건너는 순호.

여기서부터 순호가 지우의 집까지 가는 과정을 한 테이크에 담는다.

순호가 지우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집 안에서 초인종 소리를 따라 하는 지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정(소리) 누구세요?

지우(소리) 누구세요?

순호 저 오미란 씨 변호사입니다.

지우(소리) 저 오미란 씨 변호사입니다.

현정(소리) 누구시라고요?

지우(소리) 누구시라고요?

순호 변호사요! 임지우 학생이 목격했던 사건이요!

지우(소리) 변호사요! 임지우..

현정(소리) 지우야, 소리 내지 마.

집 안이 잠잠하다. 순호가 다시 초인종을 누른다.

현관문이 열리고 현정이 나온다.

순호 지우 학생 어머니세요?

현정 네.

순호 안녕하세요? 그 오미란 씨 아시죠? 제가 그 분 변호사인데..

현정 저기, 죄송한데요. 그 사건 관련해서 저희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순호 아주 잠깐만, 지우 학생한테 질문 몇 개만 했으면 해서요.

현정 죄송해요.

순호 물론 귀찮으시겠지만 오미란 씨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현정 귀찮아서가 아니라.. 지우가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제 겨우 나아졌는데 또 그런 끔찍한 거 떠올리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암튼 지우가 본 거는 검사님한테 다 말씀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순호 후...

순호, 지우가 목격했다는 방 창문으로 걸어가 은택의 집을 본다.

순호의 시선. 30m 정도다. 은택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의 소리가 작게 들린다.

순호 (혼잣말) 여기서 목격을 했다? ...

(아이들의 모습을 입으로 묘사한다) 아이들이 나뭇가지로 칼싸움을 하고 있다. 노는 것인지 싸우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순호, 핸드폰을 꺼내 은택 집을 찍는데 갑자기 지우의 창문이 벌컥 열리고

순호 !
지우 ... (눈 무늬의 반투명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가만히 순호를 본다)
순호 ... 니가 지우구나? 안녕!
지우 ...
순호 반가워. 나는...
지우 (커튼을 확 닫는다)
순호 (닫힌 창문에 대고 큰 소리로) 양순호라고 해.

-사이-

지우 집을 떠나는 순호, 여기 저기 사진을 찍고 있다.
커튼 사이로 훑쳐보는 지우의 눈.

25. 씨앤티이그룹 건물 앞 (늦은 오후)

씨앤티이그룹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수인이 보인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수인을 보는 순호.
수인을 눈에 담듯 보다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호.

26. 막걸리집 (밤)

순호, 혼자 앉아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수인이 들어온다.

수인 (순호에게 다가가며) 오... 양순호. (외모를 훑어보며) 뭐야?
 지금 머리에 뭐 바른 거야? ... 양복도 못 보던 거고. 여자 생겼어?
순호 여자는 무슨... 회사에서 해준 거야. 내가 그렇게 별루었나?
수인 큰 회사는 다르네.
순호 제육 시켰는데. 너도 뭐 하나 시켜. (자연스럽게 막걸리를 따라준다.)
수인 우리 집에 가서 한잔 하자.
순호 응?
수인 너 만나다니까 딸님이 술상 봐준데.
순호 경희가?
수인 니가 핸드폰 사줬잖아. 볼 때마다 용돈 주고. 고마웠나봐.
순호 자식 다 컸네...

27. 수인의 집 외부 (밤)

수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이 고장 나 깜깜하다.
등의 작은 빛이 깜빡깜빡한다.

순호 이 등 고장난지가 언젠데 좀 고쳐라. 다치겠다.
수인 (핸드폰의 손전등을 키며) ... 조심해.

수인의 딸 **경희**(14세. 여)가 문을 열고 순호를 반긴다.

경희 순호 아저씨~

28. 수인의 집 (밤)

경희가 핸드폰의 레시피를 보며 요리를 하고 있다.
요리를 태우는 바람에 연기가 자욱하다. 순호는 거실에서 상을 피고 있다.

수인 도와줘?
경희 (요리가 잘 안되어 예민) 건들기만 해봐.
수인 연기 먹었더니 벌써 배불러~
경희 (이리저리 허둥지둥) 말시키지 말라고...

순호, 둘을 보니 재밌다. 순호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사이-

경희가 순호에게 막걸리를 따라준다. 탄 고등어. 탄 계란찜. 물을 탄 것 같은 김치찌개 등.

경희 엄마가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알려줬어요.
순호 그러게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
경희 (수인이 먹으려 하자 큰소리로) 아저씨 먼저!
수인 허...
순호 (계란찜을 먹는다.) 오... 계란찜에서 불향이 나네.
수인 폼!!!
경희

순호 맛있다. 진짜 맛있어. (다시 집어 먹는다)
 경희 헤... 아저씨랑 엄마는 언제 처음 만났어요?
 순호 대학 입학해서니까
 수인 벌써 20년이 넘었네.
 경희 그때 엄마 어땠어요?
 순호 ... 음 ...

순호가 수인을 가만히 바라보면 살짝 부끄러워지는 수인.
 순호도 옛날 수인을 떠올리자 그때의 감정이 느껴진다.

순호 (말을 돌리듯) 그러고 보니 경희한테 옛날 엄마 모습이 있네.
 경희 (수인을 가만히 본다) ...
 수인 뭐? 별로야?
 순호 성격은 닮지 마라.
 경희 엄마가 좀 그렇죠?
 수인 내가 뭐?
 순호 유도리가 없지.
 경희 많이요. 근데 아저씨. 유도리는 일본말이니까 ‘윙통성이
 없다.’ 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순호 성격도 엄마네.
 수인 왜 날 안주 삼고 그래.
 경희 아. 핸드폰 개통 기념으로 사진 찍어야지.

경희가 술상과 세 사람을 셀카로 찍는다.

-사이- (몽타쥬)

그 날 수인의 집에서 경희가 찍은 순호와 수인의 사진들이 보여 진다. (3장)
 경희가 수인의 앨범에서 순호와 수인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준다.

-사이- (집 앞 길)

순호를 배웅하려고 나온 수인. 수인과 순호는 수인의 집 앞을 걸으며 이야기 나눈다.

수인 아버님은 좀 어떠셔?
 순호 뭐 그럭저럭. 몸은 느려지는데 말은 점점 많아지셔.
 수인 훗... 결혼 얘기?

순호 포기가 안 되시나봐.
 수인 ... 근데 넌 왜 여자 안 만나?
 순호 (수인을 가만히 본다) ... 아버지 병도 그렇고 갚아야 될 돈도
 아직이고...
 수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순호 ... 그런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떤 때 행복한지. 같이 헤매면 미안하잖아.
 넌 어때? 하고 싶은 일 하니까 좋아?
 수인 ... 울화만 늘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었었나?
 벽이 이렇게 단단하고 높았어? 그 벽을 깨기엔
 내 망치는 정말 보잘 것 없이 작구나 ...
 순호 ...
 수인 ... (순호를 본다)
 순호 생리대 소송은 아주 오래 갈 거야. 점점 잊혀 질 거고 질 거야.
 수인 ...
 순호 지치고 상처 받을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들 보상에 초점을 맞춰봐.
 수인 ... 장사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순호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세상엔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구.
 수인 ... 너 변했어 ...
 순호 변해야지... 부수지 못할 벽 이란 걸 알면 포기해야지...
 이제 그럴 나이야. 우리...

29. 아동 청소년 발달 센터 앞마당. (외부, 낮)

순호가 아동청소년발달센터로 걸어간다.
 센터 앞마당에서는 자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자폐인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 적힌 현수막 아래, 행사장은 파란 빛의 전구와
 등불, 형광봉 등으로 독특하게 꾸며져 있다.
 자폐우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 카메라를 보라고 하면
 자꾸 딴 곳을 보는 아이.
 클라리넷 연주를 하는 자폐우들.
 여선생님 앞에 나란히 줄을 서서 각자 다른 수인사를 하는 아이들.
 클라리넷 합주에 맞추어 이상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아이들.
 모든 것이 순호에게는 낯선 풍경이다.
 10대 자폐 소년이 물총을 들고 우다다다 순호에게 달려온다.

소년 남자지! 이번엔 남자지!

순호 응?

소년이 순호의 바지 지퍼 부분을 겨냥해 물총을 쏜다.

순호 어어? 하지마.

순호가 몸을 피하지만 소년은 깔깔대며 다시 물총을 쏜다. 마치 오줌이라도 싼 것처럼 민망하게 젖어가는 순호의 바지. 순호가 소년의 물총을 잡는다.

순호 하지 말라니까!

소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진다.

소년 남자지! 남자지!

순호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면 줄게.

소년이 물총을 내던지며 썩썩대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한다.
당황한 순호가 소년의 팔을 붙들자 소년이 날카롭게 비명을 지른다.
순호는 당황해 주변을 둘러보지만, 익숙한 일인 듯 큰 반응이 없는 사람들.
수인사를 하던 여선생님(20대 후반, 여)이 소년에게 달려온다.
소년의 머리를 덥석 붙들며 좌우로 흔드는 여선생.

여선생 안돼... 준원아 그러면 아파...

잠시 멈춘 소년은 다시 머리를 치기 시작한다.
여선생이 소년을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더니 소년의 몸 위에 올라타 힘껏 내리 누른다. 소년을 능숙하게 제어하는 여선생의 누르기 한판.
소년이 곧 차분해진다.

여선생 뺨 때리면 다쳐...

순호 ...

여선생 죄송해요.

순호 감사합니다...

순호, 젖은 바지를 가리려 하면 더욱 쏘리는 시선.

여자아이 오줌 싼다. 오줌은 화장실에서.

순호 음... 그거 아니야. 후... 미치겠구만

엉거주춤한 자세로 빠르게 건물로 들어가는 순호.

30. 청소년 발달센터 건물 안 (낮)

40대 초반의 여자 의사와 순호가 지우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보고 있다.
영상 속에는 오미란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희중**(33세, 남)이 지우, 현정과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에 50대 남자 의사가 앉아있다.

의사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목격자인 임지우양의 증상이
우리가 흔히 자폐, 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들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순호 어떨게요?

의사 일단 지능이 높아요.

순호 네? 제 눈엔 다섯 살 애처럼 보이는데...

의사 하는 행동 때문에 그렇게 보이죠. 엄청 산만해요.

화면 속에서 지우가 갑자기 천진하게 뻘컘 왈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지우 뻘컘 뻘컘 창 문 너머 노래가 뻘컘 뻘컘 여름 아침 깨우네.

의사가 영상을 뒤로 돌린다.

지우가 노래를 마치자 희중이 박수를 치는 부분이다.

의사 근데, 애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의사와 순호가 화면 속 지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지우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 뻘컘 왈츠입니다.
4분의 3박자 계열의 무곡이에요. 강약약 강약약.

여전히 포인트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의사를 보는 순호.

의사 조리가 있잖아요, 말에. 무슨 꼬마 교수님마냥.
말 자체를 끌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다섯 살 수준의 지적 능력인 건 아니죠.

순호 제가 이 병에 무지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말을 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든지...

의사 제가 보기에 이 검사님은... 자폐에 대해 좀 아는 거 같아요.

순호 그래요...?

의사 이거 교재로 써도 돼요. 자폐인 진술 이렇게 받아라.
 전문가랑 보호자 동행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했고. 쉬는 시간 충분히 줬고.
 유도신문 같은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그럼 선생님 의견은 증거 능력이 있다. 입니까?

의사 다른 의사들에게 보여줘도 그렇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지우양은...

순호가 의사를 쳐다본다.

의사 목격자로서 최적화된 아이라고 할까요?

순호 그래요?

의사 일단 아이큐도 평균 이상이고. 특히 기억력이..
 여기 영상 보면,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들어보셨죠?

순호 아니요.

희중이 사진을 들고 사진의 관련된 것을 물어보면 답하는 지우.

의사 어떤 상황을 사진 찍어놓듯이 입력하는 거예요, 뇌에.
 그랬다가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할 때 그 사진을
 딱 꺼내보는 거죠. 그만큼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할 수 있고
 또 기억에 왜곡이 없고.

순호 뭐야.. 초능력자야?

의사 자폐인 중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죠.

순호 ... 임지우양을 법정에서 세우면 어떨 거 같으세요?

의사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묻는 사람도 힘들고 답하는 사람도 힘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선 지금 애가 질문을 이해나
 하고 있나 싶을 텐데.

순호 (생각) ...

31. 순호의 방 (밤)

택배 상자에서 자폐 관련 여러 권의 책들을 꺼내는 순호.

책상 위에 보이는 자폐 관련 여러 권의 책들.

자폐 관련 공부를 하는 순호.

책에 밑줄을 긋기도 하고 수첩에 포스트잇으로 자신의 의견을 붙이기도 한다.

유튜브로 자폐에 관련된 영상들을 찾아보는 순호.

자폐인이 보는 세상과 들리는 소리들을 카메라로 찍어 보여주는 영상.(칼리의 시선)
시선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관심 가는 쪽으로 끊임없이 시선을 돌린다. (색깔이나
문양, 처음 보는 것 등) 산만하고 일상의 소음(발자국 소리,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 등)이 아주 크게 들린다.

순호 아. 어지러워.

유튜브의 영상 중 하나에 눈이 가는 순호. 클릭한다.

제목은 “기억합니다. 00그룹 세무 비리의 하수인들”

“라면 10개 절도 징역 3년. 500억 탈세. 집행유예”

리앤유그룹 변호사들의 사진이 있고 이병우의 사진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름과 함께 순호의 사진이 있다.

댓글. “기억하겠습니다.”

“나라 경제를 좀먹는 쥐새끼들”등 원색적인 비난 글.

굳은 얼굴로 생각에 잠긴 순호.

인기척이 들리자 급히 인터넷 창을 닫는 순호.

순호부 야동?

순호 허. 참 아니에요.

순호부 그런거 자꾸 보니까 여자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순호 아. 진짜 아니에요.

순호부 느릿하게 다가와 편지 봉투 세 개를 책상에 놓는다.

순호 뭐예요?

순호부 짚어봐.

순호 뭔데요... (귀찮아서 하나를 잡아서 보면 여자 사진이다)

순호부 인연이네. 니가 그걸 고른 걸 보면 인연이다. 연락해라.

순호 (다른 걸 보면 똑같은 여자) ... 하 ...

순호부 만나...

순호 그만 하세요 쫘!!! (갑자기 나온 큰 짜증에 자기도 당황. 그러나
 누르지 못하고) 지금 결혼할 여유가 없다고요.
 아버지 보증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 줄 아세요?!

순호부 ...

순호 하... 여기 저기 다 퍼주고... 왜 그렇게 사람만 좋으세요...

순호부 ... (궁시렁 거리며 뒤돌아간다)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친구가 죽겠다는데 그럼... 뭐... 어찌라고...

순호 (쏟아 붓고 미안하다) 후...

32. 구치소 여성 접견실 (낮)

생각에 잠겨 있는 순호를 가만히 바라보는 오미란.

미란 변호사님 무슨 일 있어요?

순호 임지우 양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 될 것 같습니다.

미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불리해진 거예요?

순호 증거로 채택 된다고 모두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을 입증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미란 아... 어떻게. 어떻게. 그 정신병 환자 말을 믿어요. 법이 뭐가 이래요.

순호 ...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미란 네. 그럼요.

순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구요.
 그 말은 만에 하나 오미란 씨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란 (무슨 말인지) ...

순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미란 ... 지금 저를... 아니에요. (잠깐 생각) 고것은 공정한 것이지라?

순호 (오미란의 표정을 살펴본다)

미란 하지요. 변호사님께 내 속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해야지요. 지금 허요?

순호 ... 아닙니다. 오미란 씨를 믿겠습니다.
 만약 검찰 측에서 요청한다면 거부하세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백퍼센트가 아닌 기계니까요.

미란 아. 네...

순호 자. 김은택 씨가 비닐봉지에 넣었던 부탄가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란 못 보던 것이요. 저희 집은 도시가스인게 부탄가스가 필요 없어라.

순호 그럼. 집에 있던 물건이 아니네요.

미란 네.

순호와 미란이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33. 북부 지방법원 외부 (낮)

북부 지방 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순호가 보인다.
주차장 안 유난히 넓고 작은 차에 순호의 눈이 간다.
서류들로 가득 찬 차안에서 누군가 대쉬 보드에 발을 올리고 자고 있다.
읽다 잠든 듯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있고 양말은 더럽고 헤져있다.
차 안에서 커다란 알람 소리가 난다. 그냥 가려다 알람소리에 다시 시선을 주는 순호.
차 안에서 운동화를 신은 희중, 백팩을 들고 뛰다 칫솔이 떨어진 줄 모르고 순호를 지나쳐 간다.

34. 북부지방법원 법정 (내부, 낮)

자막 “공판준비기일”

방청석의 조명은 꺼져있고 판사석 검사석 변호인석만 밝다.
40대 후반의 남자 재판장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옆에는 두 명의 배석판사가 있다.
깔끔한 순호와 까치집에 수염자국이 있는 희중, 슬쩍 보다가 시선을 피한다.

1심재판장 두 분 가까이 오세요.

순호와 희중, 재판장 앞으로 간다.

1심재판장	그럼 이제 남은 건.. 임지우 양 증인 채택 여부네요. 맞지요?
희중	네, 판사님. 저희 검찰 측은 임지우 양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라는 점을 고려해서 제출한 진술서와 영상 녹화물로 증언을 대체했으면 합니다.
순호	임지우 양은 사건 당시 상황을 본 유일한 목격자고 피고인이 기소된 핵심 근거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증인에게 질문 한번 직접 못해보고 피고인을 변론할 수는 없습니다.
1심재판장	이 검사님 변호인 쪽에서 부 동의하면 결국 진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중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 증언 없이도 수사 자료들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지우 양의 자폐적 특성을 고려해주시요. 자폐인 신문에
 익숙하지 않은 변호인의 질문에 지우 양이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정처럼 낯설고 엄격한 환경에서는요.

순호 검사님 논리대로면, 지우 양 진술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만 끌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1심재판장 ...

긴장한 듯 희중이 마른 침을 삼킨다.

순호 지금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들도 증인의 증언을 법정에서 직접 듣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중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질문 사항을 포함해 추가 진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우 양을 직접 조사했던
 제 견해로는 지우 양이 법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우려됩니다.

1심재판장 ... 나 잠깐 생각할게요.

긴장된 표정의 순호와 희중이 재판장의 결정을 기다린다.

1심재판장 임지우 양.. 증인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네요.

가볍게 한숨을 내쉬는 희중.
 순호의 얼굴에는 슬며시 미소가 떠오른다.

35. 북부지방 법원 복도 (낮)

법정에서 나온 순호와 희중.
 희중, 순호를 흘끗 보고 그냥 지나쳐 간다.

순호 저기요.

순호를 돌아보는 희중. 순호가 희중에게 찻술을 건넨다.
 자신의 가방을 확인하는 희중.

순호가 다가와 희중의 가방에 찢술을 넣고 지퍼를 닫아준다.

순호 (손을 내밀며) 이희중 검사님, 잘해봅시다.
희중 실례지만 소송중인 변호사와는 악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순호 이 검사님 동생이 자폐라고 들었어요.
희중 네. 근데요?
순호 그래서 이 사건이 배당 됐겠죠?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희중 아마도요...
순호 페어하게 갑시다. 임지우양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페어하죠.
희중 궁하면 배우셔야죠. 그걸 검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가...
순호 ... (싸가지가 없네...)
희중 그 연수원 기수 같은 거 묻고 그럴 건 아니죠? (몸을 돌리고)
순호 (저 확 주먹으로 치는 시늉을 하는데)

희중, 걷다가 생각이 바뀐 듯 획 돌아서서

희중 걷는 게 불편한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순호 ... (뭔 소리야.)
희중 걸음걸이를 맞추면 되죠.
순호 ...
희중 자폐우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기 힘들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순호 똥 품 잡지 말고 쉽게 얘기하지?
희중 ... 나오기 힘든 사람과 소통하고 싶으면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순호 ...

36. 지우의 학교 운동장(오후)

남녀공학 고등학교 하교시간.

순호가 지우 학교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다. 지우의 영상녹화진술 화면을 출력한 종이를 들고 하교하는 여고생들의 얼굴을 대조해보는 순호. 운동장 계단을 내려오는 딱 봐도 불안정해 보이는 지우. 지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잠시 서성이더니,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양손으로 자기 귀를 막고 교문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한다. 추구하는 소년들의 시선이 지우를 향한다.

한 소년이 지우의 달리기 자세를 과장되게 따라하며 지우 뒤를 쫓아간다.
이에 당황한 지우가 우당탕 넘어진다.
뒤따라오던 최신혜(16세, 여)가 나타나 지우를 일으켜 세운다.
지나가던 여자아이들 세 명 무리 중 한 명이 신혜에게 말을 건다.

여자아이1 최신혜 넌 지우 꼬봉이냐?
신혜 (얼굴이 빨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
여자아이2 왜 그래... 신혜, 자폐랑 놀아주고 용돈 받는다잖아.
지우 (표정 변화 없이 걷는다) ...
여자아이1 아. 그건 몰랐네? 뭐 따 끼리 상부상조하는 거면. 나쁘지 않네.
신혜 ...

지우의 옷을 붙들고 빠르게 걸어가는 신혜.
순호가 지우를 발견한다.

순호 임지우 학생 맞지?

신혜가 순호의 얼굴을 쳐다본다.
지우는 순호를 보지도 않고 앞서 걸어간다.

신혜 누구세요?
순호 어,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여기 명함.

신혜가 머뭇대며 순호의 명함 두 장을 받아 하나를 지우에게 건넨다.

순호 지우 친구니? 이름이 뭐야?
신혜 최신혜요.
지우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파고 시대에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순호 그래..?
신혜 야, 대놓고 그런 말하면 안돼.
지우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지우의 시선이 순호의 파란 물방울무늬 넥타이에 간다.
관심 있는 듯 쳐다보더니 걷는다. 잠시 후

지우 280.

순호 어?
지우 물방울이 280개.
순호 (자기 넥타이를 본다) ... (뭐라는 거야?)

이 모든 대화 중에도 지우는 순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다.

-사이-

교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세 사람.

순호 지우가 목격했던 사건 기억하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신혜 아, 지우 네 건너편에 거기요?
순호 응. 신혜도 아는구나. 그 할아버지랑 같이 살던 아줌마 있지?
 아저씨는 그 아줌마 변호사야.
신혜 아..
순호 신혜라도 대꾸를 해주니 눈물 나게 고맙구나.
지우 (우는 시늉을 하며) 엉엉엉! (웃는 시늉) 고마워!
 (다시 우는 시늉) 엉엉엉! (웃는 시늉) 고마워!

이건 또 뭘까 싶은 듯, 순호의 표정이 아득해진다.

신혜 애도 다 듣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순호 그래.. 아무튼 그래서 지우야, 아저씨는 지우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날 밤 지우가 본 것에 대해서 말이야.

지우는 아무런 말이 없다. 순호의 눈치를 보던 신혜가 지우를 툭툭 친다.

신혜 야, 대답해. 물어보잖아.
지우 물어본 거 아닌데. 물어볼 땐 끝을 올려야지. 물음표를
 느껴야지.
신혜 그게 물어본 거야, 병신아.

신혜의 말에 놀란 순호가 다시 질문한다.

순호 지우야. 그날 사건에 대해서 아저씨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

순호가 말끝을 너무 올려 신혜가 웃는다.

지우 거절합니다.
순호 ...

37. 지우의 동네.

셋이 지우의 동네 쪽으로 접어든다.

순호 둘은.. 항상 이렇게 같이 다니니?
신혜 학교 오고 갈 때 만요. 애가 자꾸 딴 데로 새서요.

지우가 "슈슈슈슈!" "슈슈슈슈!"하는 소리를 내며 기체나 액체가 딴 데로 새는 듯한 모양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신혜 (지우 옷을 잡으며) 아, 쫘. 가만있어.
순호 신혜는 착한 친구구나.
신혜 아니에요. 저 착한 애 아니에요.
지우 아니에요. 저 착한 애 아니에요.

신혜의 얼굴이 조금 붉어진다. 지우가 갑자기 우뚝 멈춰 서더니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을 꼭 감는다.

순호 왜 그래?
신혜 저거 때문에 그래요.

신혜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는 순호.
어느 집 대문 앞에 "개 조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신혜 하나, 둘, 셋!

신혜의 구령에 맞춰 지우가 우다다다 달려 "개 조심" 집을 지나간다.
이 소리에 오히려 자극 받은 듯 대문 안의 개가 심하게 짖어댄다.
마음이 급한 순호, 지우의 앞으로 가 걸으며

순호 지우야. 그 아줌마는 할아버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구하려고
 했던거야. 그러니까 지우가 아줌마 좀 도와줘...
지우 ... (핸드폰을 들고) 낯선 사람이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핸드폰을 진짜 누른다)
순호 (멈추어 서서) 아. 알았어. 알았어...

돌아서 몇 걸음 건넌 신혜가 슬쩍 뒤를 돌아본다.

신혜 아저씨.
순호 응?
신혜 지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세요.
친해지면 말 많아요, 재.
순호 지우는 뭘 좋아하는데?
신혜 그냥 뭐, 자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퍼즐이나 퀴즈 같은 거.
순호 ... 퍼즐. 퀴즈...

지우, 자기 혼자 빠른 종종걸음으로 멀어진다.

38. 법원 (다른 날 오전)

법원 내부가 보인다. 이병우와 순호가 걸어 들어가고 있다.
법정에서는 사람들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다.

자막: “제 1차 공판일”

39. 법원 복도 정수기 앞 (오전)

순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희중을 발견한다.
공판을 앞두고 떠는 모습이 역력한 희중, 물을 떠서 우황청심환을 먹는다.

순호 떨려요?
희중 (먹다가) 썩...
순호 초짜 티내면 불리할 텐데...
희중 ... 안 떨려요?
순호 별로...
희중 아... 부럽네...
순호 난 의뢰인과 내 논리를 믿거든요.

40. 법정 (내부. 오전)

3명의 판사들과 8명의 배심원들이 보이고 그 오른쪽에는 이병우 대표, 순호, 오미란이 왼쪽에는 희중과 다른 검사 한명이 앉아있다. 방청석에는 동네 주민들과 그리고 사망자인 김은택의 아들 만호도 보인다.

1심재판장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순호 (앞으로 나서며) 재판에 앞서 증거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1심재판장 뭐죠?
희중 (무엇인가 보려고 앞으로 나가다가 서류들을 우르르 쏜다. 황급히 쓸어 담는다)
순호 사망자인 김은택의 정신과 병력과 처방전 기록입니다.
희중 (서류를 책상에 올리고 재판대로 가며) 재판장님. 병력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사망자는 사망 전 극심한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보였었고 사건 당일 사망자 몸에서 검출 된 수면제를 처방 받았습시다.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심재판장 증거 채택합니다. 물증이 될 순 없지만 이 사건이 자살이나 타살이나 진위를 다루는 만큼 정황을 살피는 데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순호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희중 ... (그 자리에 서서 생각)
1심재판장 검사 측 들어가세요.
희중 ...
1심재판장 이희중 검사, 가세요.
희중 (멍) ...
1심재판장 (어이가 없다) 집으로 가실래요?
동료검사 (이리로 오라고 급한 손짓)
희중 아... 네.

웃음이 터지고 배심원 중 한명이 “검사님 화이팅!”이라고 외친다.

1심재판장 배심원 여러분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자. 검찰 쪽 증인 출석하세요.

-사이-

희중 증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법의학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연구원 유재홍 입니다.
 김은택 씨 사체 부검 결과와 현장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희중 분석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뭐였죠?

법의학자 머리에 쓰인 비닐봉지에 의해 코와 입이 막힌,
 비구폐색성 질식사입니다.

희중 피해자 머리에 씌운 비닐봉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법의학자 그게,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지였습니다.

희중이 비닐봉지와 은색테이프를 집어 들고 보여 준다.

희중 이게 그 비닐봉지 맞지요?

법의학자가 희중으로 부터 넘겨받은 봉지를 살펴본다.

법의학자 네, 그렇습니다.

희중 만일 누가 이 비닐을 얼굴에 씌우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손으로 찢지 못하도록 완력을 써서 막는다면 피해자는 결국
 질식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순호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것을 전제로 묻고 있습니다.

1심재판장 증인 얘기 들어봅시다. 어차피 가정적으로 묻는다는 건
 다 아는 거니까요. 증인, 대답해보세요.

순호가 할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는다.

법의학자 힘으로 제압한다면 질식사할 수밖에 없겠지요.

희중 봉지가 씌워진 때부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로 추정하십니까?

법의학자 보통 4분에서 7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희중 사건의 상황을 고려해서 더 구체적인 시간을 잡아보신다면요?

법의학자 사망자가 80세의 고령자였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흥분한 상태였다면 4분 정도 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희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4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건가요?

법의학자 네, 그렇습니다.

희중 그 4분 동안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구하려고 한 흔적이
 있습니까?

법의학자 비닐봉지에 피고인의 지문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봉지를 찢겠다, 라는 뚜렷한 의도를 담은 행동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희중 다시 말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하려고 한 물적 증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의학자 네, 없었습니다.

희중 피해자 사체를 부검하고 사건 현장을 감식한 전문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하려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법의학자 음.. 피고인 오미란 씨는 신체 건강한 사십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반면 사망자는 50kg이 채 안 되는 기력 없는 팔십대 노인이었구요. 저 체격의 43세 여성이 팔순 노인의 저항 때문에 4분 동안이나 비닐봉지를 찢지 못했다?

체격을 확인하려는 듯, 판사들과 배심원들이 미란을 쳐다본다.

법의학자 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희중 (만족스런 답을 들었다) 이상입니다.

희중이 자리로 돌아가고, 순호와 이병우 대표가 서로 눈짓을 교환한다.

1심재판장 변호인 반대 신문 하세요.

미란 ... 건강한 게 죄여?

미란이 순호에게만 들릴 정도로 나직하게 투덜댄다.

순호가 그런 미란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선다.

순호 맞습니다. 그 비닐은 누구나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증인, 김은택 씨는 봉지에 산소가 없어짐에 따라 점점 심하게 발버둥 쳤겠지요?

법의학자 (생각) ...

순호 증인 대답해주세요.

법의학자 네. 그랬겠죠.

순호 피해자가 스스로 봉지를 뒤집어쓰고 그렇게 심하게 발버둥을 치는 상황이라면 쉽게 제압하고 구할 수 있었습니까?

법의학자 사망자와 피고인의 체력 차이를 비추어 볼 때, 제 생각엔 충분히 제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호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사무관에게 싸인을 보낸다.)

프로젝터 스크린에 화면이 뜬다.

순호 이 논문은 2011년에 법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익사자의 법의학적 특성”이라는 논문입니다.

법의학자 ...

순호 이 논문에 보면 “익사자의 경우 호흡곤란의 고통으로 인해 괴력에 가까운 힘으로 구조자나 물체를 붙잡으려 하는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손톱이 파손되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논문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의학자 ... 네 ... 제가 쓴 논문입니다.

판사, 배심원, 사람들 술렁거린다. 이병우 대표가 만족스럽다는 듯 살짝 웃는다.

순호 증인이 쓰신 이 논문은 혹시 조작입니까?

법의학자 (당황) 아닙니다.

희중 (일어서며)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불필요한 질문으로 증인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1심재판장 변호인은 질문에 신중을 기해주세요.

순호 네. 알겠습니다. 논문대로라면 사망자인 김은택 씨도 그 괴력이 나올 수 있었겠네요.

법의학자 (생각)...

1심재판장 증인. 대답하세요.

법의학자 네...

희중 ...

순호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본 변호인이 의구심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로 자살을 한다고? 그게 될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비닐봉지 자살’ 이라고 입력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화면을 보여주며) 자살 키트라는 상호로 비닐봉지를 이용한 자살도구가 인터넷 판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유행이 되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구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네 명이 이 방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희중 재판장님. 재판의 본질과 무관한 변론입니다.

1심재판장 음... 그런 것 같네요. 방금 한 얘기는 염두에 두지 말아주세요.

순호 재판장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 자살 방법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봉지에 부탄가스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환각상태를 만들어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사망자의 봉지 안에서도 부탄가스가 검출 되었습니다.
여기를 봐주십시오.

순호, 화면에 사건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부탄가스 사진을 띄운다.

순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부탄가스통입니다.
만약 이 가스통을 사망자인 김은택 씨가 구입했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진실에 다가가는 중요한 물증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심원들 ...

1심재판장 ...

순호 이희중 검사님.

희중 네.

순호 입증한다면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희중 유도 신문 하지 마세요!

순호 (화면을 띄우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목적이 있었던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김은택 씨 사망 이틀 전 영상입니다.

-cctv 영상- 동네슈퍼 (낮)

김은택이 동네슈퍼에서 부탄가스를 사는 영상.

사람들 웅성이고

희중 부탄가스를 구입했다는 사실이 자살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심재판장 ...

순호 판사님 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1심재판장 ... 증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순호, 자리로 들어오고 이병우 대표 잘했다고 어깨를 툭툭 쳐 준다.

희중, 혼란스러운 표정.

미란이 순호의 팔을 꼬옥 붙잡는다.

순호가 미란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 보인다.

-사이-

1심재판장 다음 기일은 2주 후로 하고, 그 날은 쌍방 증인으로 사건의 목격자인
임지우 양을 증인 신문하기로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사봉으로 “땅땅땅” 치고 법정을 나선다.

41. 지우의 학교 앞 (오후)

지우와 신혜가 학교 밖으로 나온다.

순호 지우야! 신혜야!

교문 앞에 서 있던 순호가 손을 흔든다.

신혜 안녕하세요.

순호 응. 신혜, 잘 있었어? 지우야, 이제 아저씨 낯선 사람 아니지?

반응 없이 더 빠른 걸음으로 걷는 지우.

-사이- (천변 도로)

순호가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간다.

지우의 뒷모습을 관찰한다. 순호가 빠른 걸음으로 지우 앞에 선다.

순호 아저씨가 지우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 가져왔는데.

쇼핑백에서 그림 퍼즐, 도형 퍼즐, 종이로 된 입체 퍼즐 등을 줄줄이 꺼내는 순호. 지우, 아무 반응이 없다.

순호 별로야?

신혜 이런 건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가 걸기 시작한다. 순호 따라간다.

순호 왜? 너 그거 편견이다. 아저씨는 지금도 하는데 퍼즐?

신혜 아저씨가 이런 걸 진짜 한다고요?

순호 하는데? 퍼즐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수학 퍼즐 같은 건 어때?

숫자 6 세 개로 7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혜 몰라요!

지우 몰라요!
 순호 생각해 봐. 힌트는 분수야.
 신혜 뭔데요, 답이?
 순호 6에다가 6분의 6을 더하면 7이지.
 신혜 (관심 없다) 아~
 순호 재미없어? 발상의 전환이잖아. 논리 퍼즐도 있어.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그거야.
 신혜 논리 퍼즐?
 지우 논리 퍼즐?
 순호 네 벽의 창문이 모두 남향으로 난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지우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멈춰 선다. "개조심" 구역이다.
 신혜와 순호도 지우를 따라 자연스럽게 멈춰 선다.

신혜 하나, 둘, 셋!

지우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한다.
 그 뒤를 신혜와 순호도 따라 뚫다. 개가 짖는다.

신혜 문제 너무 어려워요~ 힌트 없어요?
 순호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에 초점을 맞춰야 풀려.

자하슈퍼 앞. 라면 먹는 사람들 보고 그 라면의 CM송을 크게 부른다.

지우 (작게) 오뚜기 진 라면~

신혜가 지우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긴다.

지우 (크게) 오뚜기 진 라면~
 신혜 아, 쪽팔리게. 썸.
 순호 우리. 라면 먹을까?
 신혜 좋아요.
 지우 좋아요.

-사이-

“음... 음”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는 지우와 신혜, 순호의 먹방. 참 맛있게 먹는다.
지우는 아이처럼 젓가락질도 잘 못하고 흘리면서 먹는다.
순호가 라면을 먹고 단무지를 먹으면 지우는 라면을 먹고 파란 젤리를
반찬으로 먹는다.

순호 ... (신기해서 가만히 보다가)

순호도 지우 따라서 파란색 젤리를 집으면 하지 말라고
손을 세게 탁 치는 지우.

지우 이러지 마세요!!!
순호 (병) ...
신혜 지우는 파란색 젤리만 먹어요.
지우 파란색 젤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순호 ...

그리고는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색 젤리를 집어서 순호 앞에 놓는다.
라면을 먹고 젤리를 먹는 순호, 얼굴이 일그러진다.

42. 지우의 집 앞 (오후)

희종과 지우의 엄마 현정이 현관 앞에서 지우를 기다리다 다가오는
셋을 발견한다.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순호를 보는 현정.
순호와 희종이 서로 목례를 한다. 신혜는 인사를 하고 간다.

현정 신혜야. 수고 했어. 고마워.
희종 ...

지우, 엄마와 희종을 보고 뛰어간다.
둘만의 인사법인 듯, 희종과 지우가 주먹을 부딪치는 것을 시작으로
동작이 다소 긴 수인사를 한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던 순호가 현정에게 다가간다.

순호 지우 어머니, 저 기억하시죠? 양순호라고. 오미란 씨 변호사
 다. 길에서 지우 만나서 잠깐 인사 좀 나눴습니다.
현정 아휴, 검사님 오시고 변호사님 오시고.

이제 집에서 재판만 하면 되겠네요.

빈정대는 현정의 얼굴에 싫은 기색이 역력하다.

순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현정 ...

희중 법정출석 거부 하셔도 됩니다.

현정 (들어가려다) 네. 거부하겠습니다.

지우 (따라한다) 네. 거부하겠습니다. (집으로 들어간다)

순호 어이 검사 양반.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중 ... 저도 변호인 측 신문이 듣고 싶어요.

전 단지 지우가 걱정 되서 하는 말입니다.

순호 만에 하나라도 생사람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황이 자살이라고 하는데

왜 혼자 그래요? 뭐 탄나라당 입니까?

희중 훗... 리앤유 변호사가 탄나라당 디스하니까 재밌네요.

순호 ... (화가 나는걸 누른다)

희중 그거 아세요?

... 자폐우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전 지우를 믿어요.

순호 나도 오미란 씨를 믿습니다. 나도 공부를 좀 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어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죠.

희중 ...

순호 다들 검사와 변호사를 창과 방패 뭐 그러던데.

우린 저울이 되는 건 어때요.

희중 네... 지우, 사람들 편견 때문에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순호 ... 떨릴 땐 우황청심환 말고 가슴에 압박봉대를 해봐요. 훨씬 좋아요.
경험상...

희중 ...

순호 지우랑 하던 인사 좀 가르쳐줘 봐요. 나도 지우랑 좀 친해지게.

희중 ... 거부하겠습니다.

희중, 가면 순호 혼자 기억을 더듬어 수인사를 흉내낸다. 그 모습이 우습다.

지나가던 아이들 이상한 동작을 하는 순호를 본다.

거실 창으로 지우가 본다. 지우, 무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고 올린다.

43. 광화문거리 (아침)

전광판에 도심을 날고 있는 고래 애니메이션이 보인다.

화면 바뀌고 뉴스속보가 뜬다.

순호, 건다가 사람들과 함께 씨앤에이 생리대 관련 소송 뉴스를 전광판으로 본다. “C&A 대표 무죄” 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검찰 판결 납득할 수 없어” 수인의 인터뷰가 자막으로 보여진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피해자들과 상의 후 항소를 결정하겠다.”

분노에 가득 찬 수인의 얼굴.

44. 막걸리 집 (비, 밤)

수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고 순호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수인, 취해있다.

수인 ...
순호 (수인에게로 가며) 전화 왜 안 받아?
수인 혼자 있고 싶은데.
순호 (옆에 앉으며) 나도 혼술 하러 왔어.
수인 (피식) 이제 일심 끝났는데. 뭐...
순호 왜 그렇게 순진해... 상대는 변호사만 열다섯이야.
 다 판사 검사 출신에 이런 재판 밥 먹듯 한 사람들이라구.
수인 ... 그래서 포기하라고?
순호 실리를 취하라는 거야. 원칙만 내세우지 말고.
수인 열여섯이랑 싸우는 것 같네.
순호 뭐?
수인 너까지 합쳐서... 회사 지시받고 온 건 아니지?
순호 야! 김수인... 너 무슨 말을...?! 지금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수인 난 너처럼 안 변해... 가줄래? 쌍욕 할지도 몰라.
순호 ...

45. 순호의 사무실 (밤)

비는 그치고 비가 유리창에 묻어있다.

밖에서는 최루탄 터지는 소리, 불꽃놀이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순호, 문자가 오는 소리에 문자를 확인한다. 수인에게서 온 문자, 민변 시절 순호가 구치소 앞에서 일인 시위하는 사진이다.

사진을 삭제하는 순호.

사무실을 나가려다 서랍을 열어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간다.

46. 호텔 스위트 룸 (밤)

순호, 엘리베이터에서 바로 연결된 방으로 들어서면

정원 같은 곳에서 두 명의 여인이 술에 취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

각자 한 손에는 5만원권 다발을 들고 있다.

룸의 한쪽 면이 유리로 되어 서울 시내가 작게 보이는 아주 넓고 럭셔리한 호텔 스위트 룸. 규모와 분위기에 놀라는 순호.

야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커다란 TV앞 소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순호를 부르는 이병우.

이병우 어이 양변 여기!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양주를 서빙하고 있고

TV 앞 소파에는 5만원권 다발을 앞에 둔 이병우와 로펌변호사 두 명

그리고 씨앤티이 대표 이윤재가 즐거운 얼굴로 여인들과 같이 앉아 있다.

순호 변호사들과는 목례를 하고

이병우 여긴 이윤재 대표. 서로 안면은 있지?

순호 네... 안녕하세요. 양순호입니다.

이윤재 (야구에 정신 팔려 건성) 네. 이윤재예요.

삼성과 롯데의 경기. 롯데선수가 안타를 치자 이병우 대표 옆에 앉은 여자가 5만원권 다발을 이윤재 앞으로 던진다. 이윤재 옆 여자 그것을 받아 차곡히 놓는다.

순호 (그것을 보고) ...

순호가 소파에 앉자 전자담배를 피던 여자가 옆으로 와 앉아 서빙을 한다.

이병우 자네가 롯데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더라구.
상의 할 일도 있고...

롯데 선수가 홈런을 치자 좋아! 하는 이병우.
여자들이 돈 세 뭉치를 이병우와 건너편 변호사에게 건넨다.

-사이-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순호, 같이 술을 마신다.

-사이-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순호, 무엇에 홀린 듯 멍한 표정.
헛! 웃고 나오는데 이윤재가 여자를 들어 안고 열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다.

-사이-

자리에 앉는 순호.

이병우 자네 쏘주파라면서?
순호 위스키는 아직 맛을 잘 모릅니다.
이병우 위스키도 레벨이 있지. 이게 무서운 게 말야.
 좋은 거 먹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비참해져.
 어떨 땐 내가 이거 마시려고 돈 버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순호 ... (술을 마신다)
이병우 양변 회계법인 태화 김만호 대표 만난 적 있지?
순호 네. 김은택 씨 아드님 아닌가요?
이병우 나랑은 학연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필요하대.
순호 ...
이병우 양변을 추천할까 하는데...
동료변호사 와우...
순호 ...
이병우 상황이 묘하긴 한데... 재판이야 양변이 이미 끝냈다고
 판단하는 거고. 워낙 좋은 기회라. 양변한테도 회사에도.

주위 변호사. 부러운 듯 순호를 본다.

순호 ...

이병우 회계법인 태화와 일한다는 건 자네 레벨이 달라지는 일이야.
 물론 회사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겠지.
 해 볼 생각 있나? 회사랑 파트너로... 6대 4.
 뭐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양변 의사가 중요하니까. 알다시피 회계 쪽은 적당히
 때 문을 각오도 해야 하고...

순호 ...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병우 마시고 즐겨... 이런데 어울리는 사람이 되라고.

순호 ... 네.

이병우 자 그럼 양변한테 때 좀 묻혀볼까? (리모콘으로 조명을 줄인다.)

순호 ...

조명이 어두워지자 순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47. 순호의 집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순호.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 순호부.

순호부 (살짝 돌아보며) 왔냐?

순호 안 주무세요?

순호부 (책에 정신) 재밌네. 책이.

순호 (냉장고로 가며) 저 파트너 변호사 될 것 같아요.

순호부 ...

순호 안 좋으세요?

순호부 그게 뭔데?

순호 (물을 마시고) 그게 뭐냐면... 그냥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순호부 돈 많이 벌면 좋은 거냐?

순호 ... 좋죠. 빚도 갚고.

순호부 니가 좋으면 좋은 거네. 축하한다.

순호 ... 들어갈게요.

48. 순호의 방 (밤)

어두운 방 침대에 돌아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는 순호.
 경희가 찍어서 보내주었던 수인과의 사진을 보고 있다.
 수인의 전번을 띄우고 전화를 걸 듯 말 듯 고민하다가 걸지 않고
 침대 말으로 던진다. 뒤척이는 순호.

이때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린다.

문자 “북극”
순호 (혼잣말) 북극?
문자 “북극에 집을 지으면 네 면의 창문이 모두 남향입니다.”
 (잠시 후) “정답입니까?”
순호 아. 퍼즐!

순호가 벌떡 일어나 협탁 위 스탠드를 켜다.
침대에 걸터앉아 지우에게 전화를 거는 순호. 두 사람이 분할화면으로 보인다.

지우 여보세요.
순호 혹시 지우니?
지우 네. 임지우입니다. 정답입니까?
순호 어! 정답이야.
지우 네. (바로 끊는다)

당황하는 순호. 잠시 생각하다
방구석에 쌓아둔 퍼즐 더미 중 퀴즈 책을 꺼내 뒤적이며 지우에게 전화한다.

순호 (퀴즈쇼 로고송 흥내) 덩동맹!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지우 ...
순호 모두 더하면 15가 되고 모두 곱하면 120이 되는 숫자 5개는 무엇일까요?
지우 ...
순호 (조금 민망. 그러나 씩씩하게)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우 네. (또 끊는다)
순호 지우야. 지우야?

지우에게 다시 전화가 온다.

순호 여보세요?
지우 1.2.3.4.5입니다. 정답입니까?
순호 (놀란다) ... 정답. 축하합니다.
지우 ... (아주 살짝 입 꼬리가 올라간다)
순호 지우야? 전화 끊었니?
지우 아니요.

순호 그래. (어찌할지 생각) 지우가 아저씨처럼 퍼즐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매일 시간을 정해서..
 아저씨가 문자로 문제를 내면 지우가 하루 동안 생각했다가
 다음날 또 통화하면 어떨까?

지우 네.

순호 5시 어떠니? 오후 5시.

지우 네.

지우가 전화를 끊는다. 끝 인사를 하려던 순호가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49. 몽타쥬. (여러 날) *순호와 지우.

1. 일하고 있는 순호, 핸드폰이 울리면 지우다. 시계를 보면 정확히 5시.

순호 지우야 안녕!
 지우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순호 정답. 축하합니다. 참 잘했어요.

2. 다른 날. 지우의 하굣길. 교문 앞에서 지우를 기다리던 순호, 손을 막 흔든다.

3. 다른 날.

지우를 괴롭히며 오는 남학생들 공을 던져 지우를 맞힌다.
 공이 굴러 순호의 발밑으로 간다. 순호 공을 잡더니 “이느무 새끼들!!!”
 순호, 공을 들고 달려가자 도망가는 남학생들. 그 모습을 보는 지우.

4-1. 다른 날. 학교 앞에 슬러시를 사들고 온 순호.

4-2. 슬러시를 먹으며 걷는 세 사람.

5-1. 다른 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걷는 세 사람.

5-2. 개조심 구역에 서서 지우, 신애 뒀다. 뒤돌아보면 개를 안고 있는 순호.
 개가 꼬리를 흔들며 순호를 핥는다.

5-3. 슈퍼 앞. 세 사람 라면을 먹으며

순호 아까 개가 꼬리 흔들고 있었지? 그건 반갑다고 하는 거야.

내가 지우한테 손 흔드는 것처럼.
지우 개 짖는 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사실을 몰랐던 듯, 놀라는 순호.

6. 다른 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진다.
그것을 보는 지우의 눈동자가 반짝인다.
투명한 지우의 눈을 보다가 자기도 나무를 보는 순호.
같이 나무 사이 빛을 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

7-1. 다른 날. 지우 어딘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핸드폰의 시계다.
5시가 되자 아주 빠른 속도로 순호에게 전화를 거는 지우.

지우 정답은.

7-2. 법원 외부 계단
일 때문에 법원에 온 순호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다.

순호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바로 전화를 끊는 지우. 순호, 잠시 생각하다 지우에게 전화를 한다.

지우 여보세요.
순호 지우야. 통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말을 다 했는지 확인하고
 끊는 거야.
지우 말을 다 했습니까?
순호 응?
지우 (전화를 끊는다.)
순호 훗... (웃음이 난다. 일을 하러 간다.)

50. 회계법인 태화 대표실 (낮)

만호의 사무실. 계약서가 보인다. 계약서에는 이미 만호의 싸인이 되어 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순호, 많은 상장들, 처음 만났을 때 떼어간 은택의 사진이
보이고 아버지와 함께 기부하고 찍은 사진 등을 본다.
만호가 양복 입은 비서와 들어오면 일어나는 순호.

만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순호 아닙니다.
 만호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인연이 되네요.
 순호 아. 예...
 만호 계약서에 싸인 하셨어요.
 순호 예.
 만호 이제 한식구가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51. 지우의 학교 (오후)

학교 앞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는 순호, 아이들이 다 나왔는데
 지우가 보이지 않는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순호.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순호, 멀리서 작게 전화벨 소리가 들린다.

-사이- (학교 안 외진 곳)

얼굴에 상처가 있는 신혜가 지우를 향해 뚜껑을 연 음료수 병을 내민다.

신혜 마셔봐. 맛있어.

지우가 병을 받아 들고 숨을 참더니 용기를 내 음료를 들이켜 보지만
 금방 "우웬!" 소리를 내며 전부 뱉어낸다.
 땅 위에 쏟아진 음료수 사이로 말벌, 구더기 등 죽은 벌레의
 시체들이 보인다.

신혜 나도 먹었거든? 너 때문에 먹은 거야... 우린 친구니까
 너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삼키라고~ 자폐 년아!

언제나처럼 생글거리는 표정인 채로, 신혜가 지우의 뺨을 세게 때린다.
 떨어진 곳에서 이를 본 순호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춘다.
 지우의 뺨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신혜 한쪽만 빨가면 이상하지? 다른 쪽도 맞아야겠다.

신혜가 킁킁거리며 지우를 때리려고 손을 치켜든다.

순호 지금 뭐하는 거야!?

신혜가 흠칫 놀란다.

순호 너...

혼날 것 같은지 긴장하며 몸을 움츠리는 신혜.

순호 착한 녀석인 줄 알았는데.

신혜 그니까 말했잖아요! 나 착한 애 아니라고!

신혜가 도망치듯 달려간다.

지우가 신혜를 따라가려 한다. 순호가 지우를 붙들어 세운다.

순호 쟈 따라가면 어떡해! 전에도 이랬어? 때리고 이런 거 먹이고?

순호에게서 풀려난 지우가 다시 신혜를 따라간다. 순호가 지우를 붙잡는다.

지우 신혜랑 같이 다니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순호 그건 신혜가 친구일 때 얘기지!

지우가 멍청한다.

지우 신혜는 친구입니다.

순호 지우야, 괴롭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충격을 받은 듯 지우가 멍해진다.

순호 아직도 모르겠니? 신혜는 널 이용하는 거야.

도와주는 척 하면서 괴롭히잖아!

지우 아닙니다. 친굽니다... 친구.

지우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양손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기 시작한다.

당황한 순호가 지우의 행동을 막아보지만 지우가 순호의 손을 뿌리친다.

지우가 순호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른다.

지우의 호흡이 가빠진다.

지우를 업고 학교를 뛰기 시작하는 순호.

52. 미술학원.

현정이 운영하는 작은 미술학원. 주로 미취학, 초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현정이 핸드폰을 받고 눈이 커진다.

53. 병원 회복실 (오후)

지우가 회복실 침대 위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지우 (눈물이 고인다) ... 엄마에게 말하지 말아요.
순호 왜?
지우 (눈물이 떨어진다) 엄마가 아파요. 마음이...
 신혜가 혼나요. 신혜 아파요.
순호 ... 알리지 않으면 더 심해져 ...
 아저씨는 엄마랑 학교에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앞치마에 물감을 그대로 묻힌 채 현정이 헐레벌떡 들어온다.

-사이-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지우.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순호와 현정.

순호 좀 놀래서 그렇지 괜찮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현정 ...
순호 신혜 그 녀석.. 모난 데가 있더라구요. 웃는 얼굴을 해가지구선.
현정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어서.. 믿고 부탁했는데..

감정이 북받치는 듯 현정이 울기 시작한다.
지우를 보자 울음을 참으려 하는데 쉽지 않다.

현정 용돈도 꼬박꼬박.. 진짜 마음으로 잘해줬는데...
 지우한테 친구가 신혜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까지...
순호 ... 전 이런 쪽 잘 모르지만. 지우한테 특수학교는
 어떨까요. 요즘엔 학교 폭력이 워낙 살벌해서..

현정이 숨을 크게 쉬며 울음을 참는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현정 기저귀를 갈아요.

순호 네?

현정 지우가 처음 한 말이에요. 돌 막 지났을 때요.
다른 애들은 겨우 엄마, 아빠 하고 있을 때 우리 지우는
문장으로 말을 했어요.

순호가 현정을 본다. 잠든 지우를 보며 추억에 잠긴 현정.

현정 두 살 때부터는 글을 줄줄 읽었어요. 애들 책 말고 신문어요.

순호 대단하네요.

현정 천재인 줄 알았죠, 그때는. 우와, 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나.
말 잘하고 글 잘 읽으니까 변호사 하면 좋겠다, 그랬죠.

순호 ...

현정 그랬던 앤데 이제는.. 특수학교 보내란 얘기를 듣네요.

순호가 당황한다. 수습할 말을 찾아 헤매다가,

순호 특수학교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소리고요.
지우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말도 똑 부러지게 하고 퍼즐도
얼마나 잘 푸는데요.

현정이 지우를 가만히 바라본다.

순호 자폐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요, 그쵸?

현정이 웃는다.

현정 그렇지만 자폐가 아니면 그건 지우가 아니잖아요.

순호가 놀라 현정을 쳐다본다.

현정 지우가 지우만 아니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무엇에 맞은 듯 멍한 표정의 순호.

54. 지우의 집 앞. (밤)

순호의 차가 지우 집 앞에 멈춰 선다.

순호가 차 문을 열어주자 현정이 막 잠에서 깬 지우를 부축해 함께 내린다.

현정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우 감사했습니다.

순호 에이, 뭘요. 꼭 쉬세요. 지우야! (희중이 한 것처럼 인사로
 주먹을 내밀어 보는데)

지우 ...

잠시 보다가 고개를 뺄 돌려 뛰어 들어간다.

순호 지우야 잘 있어! 또 보자.

순호가 몸을 돌리는데 현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현정 저기, 변호사님. 잠깐 들어오실래요?

예상 밖의 제안에 순호의 표정이 밝아진다.

55. 지우의 집 안 (밤)

순호가 현정과 지우를 따라 집으로 들어오며 안을 둘러본다.

거실 벽에는 커다란 가족사진이 붙어 있다.

활짝 웃는 부모 사이에서 너무나 무표정한 지우 모습에 순호가 웃는다.

순호 아버님은...

현정 출장 갔어요. 직업이 여기저기 다니는 일이라.

 지우 방에서 얘기하는 게 낫겠죠? 검사님은 그렇게 하시던데.

56. 지우의 방 (밤)

실내복 차림의 지우는 태블릿으로 보노보노를 보고 있다.

보노보노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는 지우.

벽에는 사람의 여러 표정과 각 표정이 의미하는 감정이 적힌,

지우의 손 글씨로 "사람의 마음"이라 적어놓은 포스터가 붙어있다.

그 옆 어릴 적 그린 자신의 그림 위로 장래희망 “변호사”

순호 지우 장래희망이 변호사구나?

지우 ...

순호 왜 변호사가 되고 싶어?

지우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순호 ...

지우 (똑바로 보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순호 ...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 와. 지우가 처음으로 아저씨에 대해 물어봤네.

현정이 주스 한 잔을 들고 들어와 순호에게 건넨다.

순호 감사합니다.

현정 지우야, 그거 꺼. 아저씨랑 얘기하기로 했잖아.

지우가 태블릿의 소리를 줄인다.

지우 이렇게 하면?

실랑이가 예상되는 듯, 현정이 한숨을 내쉰다.

순호가 현정에게 괜찮다는 눈빛을 보낸다.

순호 그래, 음소거로 해놓자. 지우야, 그날 밤 기억하지?
김은택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지우는 아무런 반응 없이 보노보노만 쳐다본다.

현정 지우야, 대답해야지.

지우 네.

순호가 지우의 진술서를 뒤적인다.

순호 여기 보면 지우가 검사님한테 말하기를,

현정 희중 아저씨.

순호 그래 지우가 희중 아저씨한테 "아줌마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붙잡았고 할아버지가 넘어졌다."

지우 오메~ 징허게 추접네이!

여전히 보노보노에 시선을 뺏긴 채, 지우가 걸쭉하게 사투리를 내뱉는다.

현정 지우야, 아저씨 묻는 말에 집중해야지!

현정의 다그침에 지우가 조용해진다.

현정 죄송해요. 지우가 TV 소리, 사람들 말소리 따라
하는 걸 좋아해서요.

순호 괜찮습니다. 아줌마가 할아버지 얼굴 어디를 어떻게 붙잡았니?

지우가 손으로 자기 입을 덮석 막는다. 입이 막힌 채로,

지우 여기를 이렇게요.

순호 그렇게 붙잡는 게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았니?

손을 내리고 지우가 잠시 생각에 잠긴다.

지우 네. 공격했어요.

순호 ... 음. 어쩌면 아줌마가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 안 그러니?

지우 오메~ 징허게 추접네이!

약간 화가 난 듯, 현정이 태블릿을 꺼버린다.

현정 지우 자꾸 집중 안 할래?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로 지우가 현정을 쳐다본다.

지우, 일어나 창가로 가 밖을 본다.

둘 사이에 흐르는 예사롭지 않은 기운에 순호가 눈치를 본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현정 잠시 만요. (밖으로 나간다)

순호 오늘 많이 힘들었지? 쉬고 싶을 텐데 아저씨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네.

지우 사람 마음이 참 어려워요.

지우가 벽에 붙은 "사람의 마음" 포스터를 쳐다본다.

갑작스런 말에 순호도 포스터를 본다. 웃는 얼굴 그림 밑에는 "행복함" "기쁨" "즐거움" "친절함"이라 적혀 있고 화난 얼굴 그림 밑에는 "화" "분노" "공격"이라 적혀 있다.

지우 신혜는 늘 웃는 얼굴인데 나를 이용하고 엄마는
 늘 화난 얼굴인데 나를 사랑해요.

뭐라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순호가 우물쭈물한다.

지우 아저씨는 대체로 웃는 얼굴이에요.

순호 ...

지우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순호 ...

57. 법원 외부 (오전)

자막 “제 2차 공판일”

지우가 현정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58. 법원 로비 (오전)

불안하게 흔들리며 앞으로 가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다.

순호가 봤던 자폐인이 보고 듣는 것을 찍은 영상과 비슷한 느낌이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하이힐 소리 시선이 빠르게 옮겨지고 다시 자판기에서 캔이 떨어지는 소리에 시선이 옮겨진다.

고성과 사람들의 대화에 따라 시선이 불안하게 움직이더니 소리들이 증폭되고 섞여 위압적으로 들린다.

현정과 같이 법정으로 향하는 지우의 시선이다.

두려움이 가득한 지우,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고개를 왔다 갔다 하더니 귀를 막고 뒤돌아 뛰어간다.

현정 지우야! (지우를 붙잡고)

지우 후... 후... (몸을 떨며 숨을 거칠게 내뿜는 지우)

59. 법정

1심재판장 증인 나오세요.

방청석에서 귀를 막고 있던 지우,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증인석까지
걸어가 앉는다. 순호, 방청객들 그런 지우를 본다.

1심재판장 증인. 어디 불편해요?

현정 ... (일어나려 하고)

순호 ...

희중 재판장님, 제가 잠시 증인의 상태를 살펴봐도 괜찮겠습니까?

1심재판장 그러세요..

희중이 지우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인다.

희중 지우야, 뭐가 불편하니?

지우 시계 소리가 너무 뽀족해요.

웅변이라도 하는 듯한 독특한 억양에 커다란 목소리, 증인석 마이크의
하울링 소리까지 겹쳐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희중 어떤 시계 소리?

지우 저 시계 초침 소리요.

지우가 법정 출입문 위에 붙어있는 벽시계를 가리킨다.

증인석에서 시계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다.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희중 재판장님, 청각에 예민한 증인의 안정을 위해서 시계 작동을
잠깐 멈출 수 있을까요?

1심재판장 저 소리가 들린다고?... (자기도 들으려 한다)

산기하다는 얼굴로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1심재판장 뭐. 그럼시다.

직원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 벽시계를 떼어내 건전지를 뺀다.

지우 으아, 이제 좀 살겠네!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린다.

희중 이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희중이 재판장과 눈빛을 교환한 후 자리로 돌아간다.

1심재판장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가 조금 키득거린다. 현정이 조마조마한 얼굴로 지우를 바라본다.

1심재판장 증인은 16세 미만 선서 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언에 효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점,
배심원 여러분들은 명심해주십시오.

배심원 두어 명이 고개를 끄덕거린다. 순호가 초조한 듯 작게 헛기침을 한다.

1심재판장 검사 측 증인 신문 하세요.

희중이 지우 쪽으로 걸어 나온다.

희중 2016년 6월 16일 오전 5시경, 증인은 방에 있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들었지요?

지우 네.

희중 그 소리를 듣고 증인은 밖을 내다보았습니까?

지우 네.

희중 그랬더니 김은택 할아버지의 집이 보였구요?

지우 네.

희중 그 다음에 증인이 목격한 것을 말해주시겠습니까?

미란 ... (지우를 본다)

순호 ... (지우를 본다)

지우가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황급히 돌리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기 시작한다.

지우 머리에 비닐봉지를 쓴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희중 할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지우가 눈을 질끈 감더니 양팔을 허공에 내저으며 허우적거린다.

지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의 만호가 지켜보다 괴로운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희중 그리고 피고인인 오미란 아줌마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지요?
지우 네.
희중 아줌마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지우 할아버지의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희중 어떻게 붙잡았죠?

지우가 손으로 자신의 입을 덮석 막는다.

지우 이렇게요.

지우의 과격한 동작 재연에 사람들이 조금 술렁인다.

희중 그 다음에 아줌마는 어떤 행동을 했죠?
지우 할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지우의 거침없는 대답. 순호가 긴장한다.

희중 어떻게 공격했지요?
지우 할아버지를 붙잡아 쓰러뜨렸습니다.
희중 아줌마가 할아버지를 구해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지우 아니요. 공격했습니다.

순호가 벌떡 일어선다.

순호 이의 있습니다. 검사측은 증인이 목격한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희중 증인은 자발적으로 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잠시 갈등하더니 희중을 향해,

1심재판장 검사측. 계속하세요.

순호 ...

희중 증인은 아줌마의 행동이 왜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지우 할아버지를 넘어뜨릴 때.. 아줌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깜짝 놀란 듯 마른 침을 꿀꺽 삼킨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진다.

희중 이상입니다.

1심재판장 변호인 증인 신문 하세요.

순호, 지우를 본다. 뭔가 생각한다. 이병우 대표가 책 한권을 들고 나간다.

이병우 증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죠? 맞습니까?

지우 네.

이병우 (책을 들이밀며) 이 책의 제목은 뭐죠?

지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이해.

이병우 증인, 여기 표시된 부분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병우가 증인석 책상 위에 책을 펼쳐 한 부분을 가리킨다.

지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만성적인.. 신경정신질환이다.

지우의 독특한 억양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찌렁찌렁 울린다.

이병우가 책의 다른 부분을 펼친다.

이병우 여기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지우 일반인은 손쉽게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행동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의 경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순호 ...

듣고 있던 현정이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쉰다.

이병우가 책을 들고 다른 부분을 읽는다.

이병우 또 다른 문제는 이들이 다른 사람의 우연한 행동과 고의적인 행동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행동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귀를 기울이는 재판장 안의 사람들.

이병우 증인이 읽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우가 자기 자리로 가고 순호가 프로젝터 리모콘을 들고 나간다.
순호, 프로젝터를 켜다.
미소 짓고 있는 여자의 사진이다.

순호 증인. 사진 속의 이 여자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죠?
지우 웃는 표정이요.
순호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지우가 잠시 머뭇거린다.

지우 눈 끝이 쳐지고 입 꼬리가 올라갔으니까요.

순호가 화면을 넘긴다. 사진 속 여자가 이번엔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순호 이건 무슨 표정이죠?
지우 놀란 표정이요.
순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놀란 표정입니다.
순호 (다른 사진을 넘긴다.) 그럼 이건 어떤 표정입니까?

사진 속 여자는 누가 봐도 놀란 표정이지만 살짝 보정되어
눈 끝은 쳐져 있고 입 꼬리는 올라가 있다.
웃는 표정의 특성을 섞은 탓에 여자의 놀라는 느낌이 더욱 괴상하게 부각된다.
지우가 사진을 보며 고민한다.

순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지만 눈 끝은 쳐져 있고, 입을 벌리고

있지만 입 꼬리는 올라가 있습니다. 무슨 표정이죠?
지우 (눈을 깜박이며 생각한다) ...
희중 이의 있습니다.

희중이 벌떡 일어서지만 지우의 대답이 앞서 나간다.

지우 웃는 표정이요.

영뚱한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희중 재판장님, 변호인은 사건과 맞지 않는 무의미한 테스트로
증인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 자체를 목격한
것이지 교묘하게 보정된 사진 몇 장을 본 것이 아닙니다!

순호가 재판장 앞으로 나서며 빠르게 반격한다.

순호 재판장님, 당시 상황은 정상인도 오판 할 수 있는 격양되고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증인 같이 정신병을 가진...

순호가 지우의 눈과 마주친다. 순호가 당황한다.

순호 다른.. 그러니까 특별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증인석에 앉은 지우는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순호가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다.

순호 재판장님, 증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공격의 의도를
가진 건지 구조의 의도를 가진 건지 판단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증인의 의견이 아닌 목격한 사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희중 증인이 피고인의 표정을 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변호인이 아닌, 전문가가 증인의 인지 능력을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1심재판장 이걸로 충분한 것 같은데요?

배심원들 몇몇이 재판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1심재판장 변호인이 한 테스트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배심원들을 향해)
 증인의 해석이 아닌 목격한 사실만을 증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검사측 이의는 기각합니다.
 변호인, 신문 사항 더 있습니까?
 순호 없습니다.
 1심재판장 검사 측은요? 혹시 추가 신문하실 거 있습니까?

희중이 지우를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쉰다.

희중 아니요. 없습니다.
 1심재판장 그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아요.

직원이 멍하니 앉아있는 지우를 안내해 방청석 쪽으로 데리고 나간다.
 기다리고 있던 현정이 지우를 와락 끌어안는다.
 안기는 것이 불편한 지우, 금방 빠져나와 순호를 본다.

지우 ...
 순호 ...

-사이-

1심재판장 자 그럼 1심 재판을 마치고 2주 후에 선고 하겠습니다.

60. 수인의 집 앞 (늦은 오후)

순호, 수인에게 전화를 하는데 받지 않는다.
 계단에 앉아 기다리는 순호, 형광등이 작게 깜빡거린다.
 심심해서 자기 넥타이의 물방울무늬를 센다.

순호 280개...

전화가 온다. 지우다. 5시다.

순호 어. 지우야.
 지우 (가라앉아 있다) 12를 반으로 나누어 7로 만드는 방법은
 7과 7입니다. 로마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정답입니까?
 순호 지우야... 오늘은 아저씨가....
 지우 정답입니까?
 순호 정답이야. 참 잘했어요.
 지우 ... 나는 정신병자 입니까?
 순호 그게 아니라. 지우야. 지우야...

지우가 전화를 끊는다. 일어서서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로 가는 순호.

61. 지우의 집 앞 (늦은 오후)

-지우 방-

‘사람의 마음’ 포스터를 보고 있는 지우.
 표정을 따라 연습해본다.
 땡동!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지우 집 앞-

순호가 지우 집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리고 현정이 나온다.

순호 지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정 변호사님은 지금 제 표정이 어떤지는 모르시겠나 봐요?
 순호 네?
 현정 우리 애 거기다 그렇게 세워놓고 망신 주니까 좋아요?
 순호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려다가...
 현정 사람 면전에 대고 정신병 운운하는 게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순호 그 말은... 저도 모르게... 제가 실수했습니다.
 현정 하루 종일 자기가 정신병자냐고 물어봐요! (눈물이 맺힌다)
 애 걱정하는 척 친한 척 다하더니. 정말 잔인하네요.
 순호 죄송합니다. 지우한테 사과하러 왔어요.
 한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현정 다시 한 번 지우 옆에 얼쩡대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현정이 문을 쿵 닫고 들어간다.

순호가 발걸음을 돌리는 것을 가만히 보는 지우.

62. 법정 (오전)

판결 봉을 배경으로 법정 안의 사람들이 보인다.

자막 “1심 선고기일”

판결을 기다리는 순호, 이병우, 오미란. 반대편에 희종과 다른 검사.

방청석 뒤편의 만호도 보인다.

재판장 포함 세 명의 판사가 법정으로 들어오자 법정경위가 큰소리로 말한다.

법정경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법정 내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재판부가 착석하자 다시 자리에 앉는다.

1심재판장 2016 고택 1298호. 오미란 피고인. 일어나세요.

긴장된 표정의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긴장된 순호, 희종. 여유 있는 이병우.

1심재판장 본 법원이 그동안 양 측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임지우 양의 증언은
증인의 정신적 상태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들의 의견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순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오르고, 희종은 고개를 떨군다.

1심재판장 피고인 오미란 무죄!

환한 얼굴이 되는 오미란 순호의 손을 꼭 붙잡고

미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났구만요. 감사합니다.

긴장했던 순호도 판결에 미소가 도는데 기뻐하는 미란을 보다가
미란의 시선을 따라간다.

(느린동작) 누군가를 보고 활짝 웃는 미란.

(느린동작) 미란은 만호를 보고 웃고 있다.

순호 ...

(느린동작) 무표정이던 만호, 일어서서 몸을 돌리며 자기도 모르게
작게 미소를 짓는다.

그것을 순호가 본다.

(느린동작) 멍해지는 순호의 표정.

다시 무표정으로 고개를 돌린 만호가 순호를 본다.

눈이 마주친다. 가볍게 목례를 하는 만호, 받아주는 순호.

63. 구치소 앞 (오전)

발을 바닥에 계속 부딪히며 생각에 잠겨 있는 순호.

웃음 뚝 얼굴로 짐을 들고 구치소를 나오는 오미란.

걸으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

순호 ... 검사 측이 바로 항소를 결정했어요.

미란 오메 징하게 추접네이.

-플래시백-

집에서 지우가 한 말.

지우 오메 징하게 추접네이.

순호 ...

미란 한 개도 겁 안나요잉. 변호사님이 있응께.

순호 ...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미란 (계속 걸으며) 아들 만나러 가야지라.

순호 네? 가족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란 (당황) 아... 그 아들처럼 아끼는 아가 있는디... 고놈...

순호 ...

64. 부동산 앞 (오후)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 미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호.

부동산업자 한번은 술에 취해 한탄을 하대요.
 애비 없는 애를 낳았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입양을 시켰나 봐요.
 근데 그 애가 많이 아프다고 빨리 돈 벌어서
 수술시켜야 한다고.

65. 회계법인 태화 대표실 (다른 날 오전)

순호, 만호의 표정을 가만히 본다. 선한 표정의 만호.

만호 선친 상속 문제 때문에 조언을 듣고 싶어서 뵈자고 했습니다.
순호 ... 주신 자료를 살펴봤는데 남기신 재산이 꽤 되더라구요.
만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요새 회사 사정이 녹록치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세금을 내면 나라에는
 좋은 일이겠지만... 제가 살아야 나라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순호 ...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만호의 사무실에 아버지와 기부를 하고 찍은 사진을 본다.
그 중 눈에 띄는 큰 사진. 어느 어린이 병원에 기부를 하고 만호가
은택과 찍은 사진이다.

66. 어린이 병원 건물 (낮)

김은택과 만호가 기부를 하고 같이 찍은 사진 앞의 순호.
순호가 보았던 만호의 사무실에 걸려있던 사진이다.

67. 광화문 광장 (석양)

저물고 있는 해를 등지고 걷고 있는 순호, 강한 빛 때문에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순호 ...

회상

1. 이사장 김은택 씨가 매년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사후 전 재산을 저희 병원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히셨구요.
공증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순호 ...

2. 만호 이제 한식구가 된 거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3. 순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구요.

순호, 걸음을 멈춘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있는 순호, 해가 사라지고 어두워진다.

68. 고등학교 (다른 날 오후, 비)

비가 내려 어두운 오후.

우산을 쓰고 하교 하는 많은 아이들

지우, 불안한 듯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설 새 없이 움직인다.

누군가가 뒤에서 지우를 지켜보고 있다.

얼굴에 상처가 있는 어두운 표정의 신혜가 혼자 걸어 나와

우산을 펼치려다 지우를 본다. 둘 사이의 어색한 침묵.

지우가 신혜 반대쪽으로 몇 발자국을 옮기고

신혜, 그 모습에 흑 울음이 나고 참으려고 하는데 멈추지 않는다.

도망치듯 우산을 두고 달려가는 신혜.

지우 ...

-사이-

누군가 뒤에서 우산을 접고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간다. 우산을 집는 지우.

뒤에서 다가오는 미란의 실루엣.

미란 (지우 말투를 과장되게 흉내) 아줌마가 할아버지 공격했어요!
아줌마가 웃고 있었어요!

미란의 소리에 멈칫하여 지우가 돌아본다. 지우의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한다.
뒷걸음질 치는 지우. 미란이 깔깔대며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지우가 황급히 몸을 빼지만 미란이 다시 지우를 세게 붙든다.

미란 (깔깔) 야, 함 맞춰봐라. 아줌마 표정이 지금은 어떤 거 같냐?
 애야. 난 안 죽었어.

지우가 미란의 얼굴을 본다.
장난치듯 웃고 있던 미란의 얼굴이 살벌하게 차가워진다.

미란 한번만 더 나불나불 어른들 일에 끼고 그래봐라. 잉.
 그 썩을 주머니를 확 찢어불랑게.

미란 유유히 떠난다. 하얗게 질린 채 벌벌 떠는 지우의 얼굴.

69. 호텔 스위트 룸 (밤)

스위트룸 야외테라스 창 너머로 촛불집회가 보인다.
이병우와 순호가 술을 마시고 있다.

이병우 애쓰다. 들...
순호 김만호 대표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아놔야 할 것 같아서요.
이병우 우린 속에 있는 애긴 안 해. 궁금해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주로 숫자 얘기를 하지 통장에 영씨가 몇 개가
 찍히는지. 골프는 몇 타 치는지... 훈수 하나둘까?
순호 ...
이병우 의뢰인의 진실을 보려고 애쓰면 이 일 못해.
 의뢰인 편이 돼야지. 그게 변호사가 할 일이고.
순호 ...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가만히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본다.

-사이-

야외 테라스를 나와 룸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병우와 순호.

이병우 (술을 따라주며) 씨앤에이도 마무리 됐고.
오미란 2심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변은 김대표 일에
집중하도록 해. 신경 쓸 일이 많을 거야.

순호 ... 네.

만호가 들어온다. 만호에게 목례를 하는 순호. 반갑게 인사하는 이병우.
만호와 점점 가까워지는 순호의 얼굴에 긴장감이 돈다.

순호 (만호를 본다) ... (계속 보다가 만호가 시선을 돌리자
순호, 다른 곳을 본다)

-사이-

촛불로 가득 찬 메인 테이블 위 커다란 유리 보울에 맥주 양주를 쏟아 붓는다.
이병우가 500cc 맥주잔을 가득 채운 후 자신의 소파위에 올라가면
순호 만호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오백 잔을 들고 서 있다.

이병우 (큰소리로) 리앤유와 대한민국 법조계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버텨스 업!!!

모두 원샷을 한다. 순호도 원샷을 하며 만호를 본다.
만호, 원샷을 하고 순호를 보고 웃는다. 순호 술에 취한 멍한 표정.
순호, 이미 취해 다시 오백 잔을 채운다. 들이킨다.

-사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잠이 든 순호, 꿈을 꾸는 듯
괴로운 표정, 슬픈 표정, 히죽 웃기도 하고...

70. 이병우 사무실 (오전)

방송용 조명이 켜지고 아직 술에 덜 깬 듯 한 카메라 속 순호의 표정.
사과를 먹으며 순호를 바라보고 있는 이병우.

순호 tv법률상담소 양순호 변호사입니다.

71. 순호의 사무실 (일몰. 어둑할 때 자연광으로 찍는다.)

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순호.

통화를 하는 순호와 수인이 교차로 보여진다.

수인 (어두운 집 계단을 조심히 올라오며) 어.

순호 오늘 한잔 할까? 너희 집도 좋고...

수인 순호야 우리 이제 그만 보자.

순호 ...

수인 가는 길이 다르잖아. 계속 불편할거야.

순호 ...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순호.

정연, 사무실로 들어와 불을 켜며

정연 왜 이렇게 어둡게 계세요.

시계를 보는 순호. 시계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는 순호.

지우에게 전화를 걸면 꺼져있다. 지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순호.

72. 병원 입원실 (밤)

빠르게 병원 입구를 들어가는 순호.

현정(소리) (화난 소리)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오미란이 지우를 찾아 왔어요! 애가 놀라서...

6인용 입원실에 결박 되어(의료용 결박기구) 링거를 맞고 누워 있는 지우.

순호 지우야...

지우 ... (넋이 나간 듯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링거의 양을 조절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순호 저. 지우는 좀 어떤가요?

간호사 아. 그때 그 분이시네요. 발작이 심해서 진정제를 맞았어요.

순호 저. 지우 어머니는...

간호사 지우 옷 챙긴다고 집에 잠깐 가셨어요.

순호 (지우를 가만히 본다) ... (혼잣말) 지우야. 아저씨는
 좋은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73. 포장마차 (밤)

포장마차 주인이 순호를 보며 뒷정리를 하고 있다.

순호,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지갑을 연다.

-사이-

포장마차에서 나와 비틀거리다 자신의 차에 양손을 기대고 서는 순호.

-회상(소리)-

순호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

지우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순호 ...

지우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회상-

지우가 진정제를 맞고 넋이 나간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순호 아악!!

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친다.

순호 아.... 악!!!

다시 치면 유리창에 금이 간다. 주저앉아 거친 숨소리를 내는 순호.

순호 하... 하...

74. 광화문 거리 (새벽)

광화문 거리를 걷는 순호,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려 멈춘다.
가만히 있던 순호, 차창을 쳐 피가 묻어 있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낸다.

75. 희중의 검사실 (동시간)

서류에 파묻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희중, 핸드폰을 받는다.

76. 광화문 거리 (이른 아침)

순호 할 말이 있습니다.

77. 희중의 검사실 (동시간)

핸드폰을 받던 희중, 순호의 이야기에 점점 눈이 커진다.

78. 지우의 동네. (오후)

화면 밝아지면 오래된 차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는 희중의 차.

79. 지우의 집. (오후)

-지우 방-

침대에 앉아있는 지우.

-거실-

희중과 현정이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있다.

희중 지우 어머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현정 정말 너무하시네요. 검사님이라면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희중 이해합니다. 지우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부탁드립니다 거예요.

현정 저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벌금을 물고 말지, 저 지우 다시는 법정에 안 세웁니다.

희중 ... (일어서며)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80. 지우의 방 (오후)

침대에 앉아 있는 지우. 현정이 갠 빨래를 가지고 지우 방으로 들어온다.
옷들을 정리하는 현정.

지우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갑작스런 말에 현정이 놀란다. 하지만 곧 표정을 고쳐서,

현정 아니야. 지우 힘들어서 안 돼.
지우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침대에 걸터앉는 현정의 표정이 심각하다.

현정 증인 해봤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지?
지우 응. 그래도 증인이 되고 싶어.
현정 왜?

이유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듯 지우가 머뭇댄다.

현정 지우는 정말 할 만큼 다 했어. 그니까 이제 그 일은 잊어버리자.
나머지는 검사 아저씨가 알아서 할 거야.
지우 엄마, 나는 말도 잘 하고 글도 잘 읽지?
현정 그럼. 우리 지우는 말도 엄청 잘 하고 글도 엄청 잘 읽지.
지우 그렇지만 나는 아마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자폐가 있으니까.
현정 ...
지우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먹먹한 듯 참았던 숨을 겨우 내뿜는 현정.

현정 지우야..
지우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현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81. 야외 카페 (오후)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순호. 희중이 화가 난 얼굴로 오고 있다.

순호 이 검사님. 오래간만이에요.

오자마자 순호의 멍살을 잡는 희중. 사람들이 웅성댄다.

순호 (황당) ... 뭐예요?

희중 이 새끼. 너 무슨 짓 한 거야.

순호 ...

희중 위에서 이 사건 그만하래. 검사가 바뀌었다구.

순호 ...

희중 뭐야? 재판 일주일 남았는데... 니 회사 대표가 힘쓴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돌려대지 말고 새끼야.

순호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희중 ...

- 사이 -

커피를 주문해서 희중에게 가져가는 순호. 마주 앉은 두 사람.

희중 ... 법조계는 참 변하질 않네요.

순호 ...

희중 김만호를 의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바보같이 제 자신을 너무 믿은 거죠.

순호 ... 저도 심증 뿐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어요.

희중 후 ... 변호사님 입장도 그렇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순호 ...

82. 순호의 방 (밤)

잠들어 있는 아버지와 방으로 들어와 스탠드 등을 켜는 순호가
한 화면에 보인다.

순호가 책상 위 편지를 집어 든다.

순호, 내용물을 꺼내면 여자 사진이 아니라 만년필로 정성 들여 쓴 편지다.

편지 순호에게. 하마터면 너의 생일을 잊을 뻔 했구나.
 태어나 주어 고맙다. 살아가는데 기쁨이 되어 주었어.

-플래시 백-

힘들여 편지를 쓰는 순호부.
돋보기안경을 쓰고 한자 한자 힘들게 편지를 쓰는 순호부.

편지 니가 열여섯 되던 해 법조인이 되겠다고 말하던
 얼굴이 잊혀 지지 않는구나. 숨털도 가시지 않은 입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좋아 방구를 꺾었지.

편지를 읽으며 서서히 눈물이 고이는 순호.
눈물이 고인 눈으로 톱 하고 웃는 순호.

-플래시 백-

(새벽-과거 다른 날)
문을 살짝 열어 순호를 보는 순호부.
새벽까지 일을 하는 순호의 모습, 순호부의 시선 쇼트
살짝 웃는 순호부.

편지 법조인이 되겠다고 해서 좋았던 게 아니다.
 잘 자라주었구나 했던 거다.

편지를 다 읽은 생각에 잠긴 순호, 편지지를 자신의 수첩 사이에
끼워 넣는다.

편지 살아보니 말이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구나.
 세상은 비정하고 모순투성이에다가 실수도 하고
 힘든 일도 많지.
 그런데 아들아.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려라.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너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 할 수 있다.

사랑한다, 내 아들.

(이른 아침)

옷장을 열어 양복들을 가만히 보는 순호. 전에 입던 양복을 꺼내든다.

편지지를 넣었던 수첩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선다.

아버지 있는 곳을 보는 순호.

느릿느릿 정원 나무에 물을 주는 순호부.

울컥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는 순호.

웃으며 가라고 손짓하는 순호부.

물기어린 눈으로 활짝 웃어주고 나가는 순호.

83. 서울 고등 법원 로비 (오후)

로비로 들어오던 지우와 현정. 지우 두려운 듯 멈추어 서서 들어가지 못한다.

자막 “제 2심 재판일”

현정 가자. 지우야.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우 숨을 몰아쉬며 움직이지 못한다.

84. 2심 법정 (오후)

이병우와 함께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순호.

검사석을 보면 검사들이 바뀌어 있다. 하품하고 웃고 하는 검사들.

피고인석으로 오는 미란, 순호를 보자 목례를 하고

미란 오래간만이네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순호 (굳은 얼굴로 대답하지 않는다) ...

미란 ...

방청석 뒤편을 보면 만호가 앉아있다.

85. 법원 로비 (오후)

여전히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지우.

현정 지우야. 고집 피우지 말고 가자.

지우, 한걸음을 어렵게 떼더니 앞으로 가기 시작한다. 점점 빨라진다.

86. 2심 법정

배심원들과 재판관들이 들어오자 “일동기립” 모두 일어서고 앉는다.

2심재판장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임지우 증인 나오세요.

지우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 두리번거리는데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온다.

-사이-

지우가 여전히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며 걸어 들어오고 있다.

노려보듯 지우를 보는 미란. 미란과 눈이 마주치자 움츠려드는 지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현정.

2심재판장 증인 신문하세요. 어느 쪽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검사, 변호사 쪽을 번갈아 본다)

검사 추가 질문 없습니다.

2심재판장 검사 측에서 증인 신청하지 않았나요?

검사 전임 검사가 신청한 것입니다.

본 검사는 일심에 제출한 영상자료로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미란의 옅은 미소. 무표정의 만호, 목을 뻗뻗하게 들고 있다.

순호,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병우 신문 하겠습니다.

지우 ...

이병우 증인은 자폐아입니다. (책을 펴서 본다) 자폐아들의 경우
자신들의 감정이나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마치 아이처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애초에 증인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말입니다. 증인은 본인이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우 ...

순호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순호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다.

순호 그 책에 있는 말입니다.

이병우 뭐?

순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지우 ...

이병우 ... 지금 뭐하는 거야?

순호 신문에 필요한 전제입니다.

이병우 아. 그래?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자 지우가 귀를 막고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순호가 벌떡 일어난다.

순호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증인은 청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속삭이는 소리도 증언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정숙해 주십시오.

지우에게 손수건을 들고 다가가는 순호.

순호 지우야. 손수건에 파란 물방울이 몇 개니?

지우 (슬쩍 보고) 182개요.

손수건을 가지고 재판장 쪽으로 간다.

순호 (재판장 책상에 손수건을 놓고) 물방울이 몇 개인지
세어 주시겠습니까?

검사 ?

2심재판장 양 변호사님. 이게 사건하고 관계있는 질문입니까?

순호 증인이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의사소통 방법이 특별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곧 사건과 관계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재판장 ... (옆에 판사에게 건네주고) 세어보세요.

순호 재판장님. 증인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5시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이 57분이니까. 3분 남았습니다.

2심재판장 ... 그럼시다.

-사이-

순호의 시계가 5시가 된다.

2심배석판사 ... 182 개입니다.

배심원들 ... (놀랍다는 듯 서로 시선을 교환한다)

순호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우야. 5시가 됐네. 퀴즈를 내도 될까?

지우 네.

순호 저기 문 앞에 법정 경위 분 저를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문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

순호 지우야.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볼까?

지우 네.

순호 법정 경위분. 본인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속삭이듯이
말해 주시겠습니까?

속삭이듯 말하는 법정경위.

지우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법원경위 000

순호 맞습니까?

법정경위 ...맞습니다.

재판장이 술렁인다.

순호, 자신의 자리에서 논문 하나를 들고 재판장에게 다가가 준다.

순호 자폐인의 청력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일부 자폐아의 특성 중 하나는 청력이 극도로 예민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적인 기질이 청력을 예민하게 만든 것이다.

한 아이는 창밖 나비의 날개 짓을 천둥소리 같다고 말한다.

이병우 양변호사 나랑 잠깐 얘기 좀 하겠나? 지금 뭐하는 거야?

순호 (굳은 얼굴로) ... 잠시 후에요. 아직 신문 할게 남아있습니다.

2심재판장 지금 상황이...

이병우 ...

순호 지우야. 아까 내 손수건의 물방울 숫자를 맞췄지?

그럼 사건이 일어나던 날 오미란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하니?

지우 네.

순호 오미란 씨가 했던 말은 몇 글자입니까?
지우 ... (잠깐 생각한 후) 152 글자입니다.

지우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순호 그럼 지우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 지우야, 그때 오미란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저기 속기하는 언니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몇 글자인지 세어볼 수 있을 거야.

지우가 순호와 눈을 맞춘 후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다.

지우 오메 징하게 추접스럽네. 얼마나 더 살 것다고 이리 용을 쓰요 어?!
당신 하나 죽으믄 당신 아들도 살고 우리 아들도 상께
그냥 사모님 절으로 가씨요. 놔 놔! 노라고 씨발~~~
기부할 돈 있으믄 차라리 날 줘라 씨발~~~!!!
오메 아직도 살았네 영감탱이 이 질긴 영감탱이 죽어~~
아이고 인자 뒤져부렸네 진짜로 뒤져부렸어.
오메~ 징하게 추접스럽네. 아따. 육시렐 늙은이.
뭐 이리 숨이 길다~

미란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재판관, 배심원들이 자연스레 지우와 미란을 번갈아 본다.
침착하려 하지만 표정을 숨길 수 없는 미란.
미란의 억양 뉘앙스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지우.
법정 내의 사람들 얼굴이 전부 하얗게 질렸다. 정적이 되어버린 재판장.
법정 안의 사람 모두 표정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오미란을 본다.
방청석의 만호를 바라보는 순호. 만호,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일어서려는데
뒷자리에서 어깨를 누르는 누군가의 손.
희중이다. 만호 당황하면 검사증을 보여준다.

미란

속기사 문장 부호 빼고... 152자입니다.

순호 ... 증인은 자신이 들었던 소리를 사진 같은 이미지로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히
증언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동안 재판에 혼선이 있었던 건 우리가
지우양의 특성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병우 양순호... 너 변호사야. 정신 차려!!!...

순호 (이병우를 보고) 변호사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 ...

이병우 재판장님 발언을 중지 시켜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변호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2심재판장 그렇긴 한데요 양변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다루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네요.

이병우 안됩니다. 당장 중지 시키세요!

2심재판장 재판 진행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정을 모독하지 마세요.

이병우 야 이 새끼야! 재판 중지 시키라고!!!

2심재판장 경호원! 이병우 변호사 끌어내세요!

법정경위들 이병우를 끌어내고 이병우 재판무효를 부르짖으며 강제로 퇴장 당한다.

2심재판장 양변호인 계속하세요.

순호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증인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믿지 못했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만 생각했으니까요.

사람들, 순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순호 그런데 증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편견의 시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우를 본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다시 이 법정에 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사람들 ...

지우 ... (무표정 탄 곳을 바라보고)

순호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증언하는 증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은 계속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우와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순호가 다시 지우를 쳐다보며 말한다.

순호 지우야, 넌 이제 네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 훌륭한 증인이 돼 줬어. 지우야, 고맙다.

지우 ...

순호, 이미 사색이 되어 있는 미란에게 다가간다.

순호 오미란 씨 이제 진실을 말해주시겠습니까?

미란 뭣을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호 그래야 제가 오미란씨를 도와 드릴 수 있어요

미란 아니 저런 정신 나간 애 말을 믿는 거예요?

순호 자백하세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오미란씨는 단독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미란 ...

순호 자백을 할 경우엔 정상 참작이 되어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드님... 빨리 보셔야죠.

미란 (아들이란 말에 무너진다).....하 ...하 내 새끼 똥주머니 띠는디
2천만원이 든다요. 그 영감탱이한테는 그건 돈도 아닌디...

내 밍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만호를 바라본다. 얼음이 되는 만호)

살려주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시오~

내 새끼 평생 앉아서 똥 한번 뉘본 적이 없소.

사람들 놀라서 오히려 정적. 재판관 마른 침을 삼킨다.

미란 내 새끼 살려주시오~...

순호 오미란 씨. 누가 살해를 지시 했습니까?

만호 ... (넋이 나가있다.)

미란이 만호를 바라본다.

순호 이름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미란 ... 김.만.호.

희중, 옆에 있던 형사들이 만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희중 피의자 김만호 당신을 친부 청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진술을 거부 할 권리가 있고...

만호 ...

순호, 지우를 본다. 여전히 무표정한 지우,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고
오래 순호를 바라본다.
순호도 지우를 본다.

-디졸브-

텅 비어 있는 법정에서 천천히 페이드 아웃.

87. 지우의 동네 (낮)

늦가을 지우의 동네가 크게 보인다. 지우의 집과 은택의 집이 보인다.
화면 밝아지면 손에 지우에게 줄 선물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순호가 보인다.

88. 지우의 집 (낮)

지우의 생일 파티. 자폐나 발달 장애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
한쪽에 담소를 나누고 있는 부모들도 보이고.
소파 한쪽에 희종이 자기 얼굴에 아이들이 낙서 하는 것도 모르고
서류를 품에 꼭 안은 채 웅크리고 아기처럼 잠들어 있다.
고깔모자를 쓴 지우는 아이들과 멀찍이 떨어져 패드를 들고
동영상에 빠져있다. 그 옆 신혜가 책을 읽고 있다.
그것을 소파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는 순호.

현정 (신혜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며) 신혜야. 많이 먹어.

신혜 감사합니다.

현정 (순호에게 가며)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우가 변호사님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순호 이렇게 큰 파티인지 모르고 옷을 너무 수수하게 입고 왔네요.

현정 핫! 특수학교 알아봤더니 마침 근처에 있더라구요.

순호 그 학교 친구들이에요?

현정 네. 친하게 지내 보라고 이런 것도 열어주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우야! 변호사님 초대해놓구...

지우 (동영상에 팔려 있다) ...

순호 괜찮아요. 저게 지우잖아요...

현정 ... 감사합니다.

순호 제가 가면 되죠.
현정 ...

지우에게 다가가는 순호.

순호 지우야. 아저씨랑 잠깐 얘기 좀 할까?

89. 지우의 집 앞 (낮)

집 앞 마당 서있는 순호와 지우.

순호 특수학교 다니기 시작했대며? 친구들은 좀 어때?
지우 다 너무 이상해요.
순호 그래?

순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우를 쳐다본다.

순호 많이 이상해? 별로야?
지우 많이 이상해서 좋아요.
순호 좋아?
지우 네.
순호 왜?
지우 정상인 척 할 필요가 없어서요.
순호 ... 그럼 그동안은 지우, 정상인 척 했던 거야?
지우 네. 연습했어요.

갓가지 감정에, 순호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순호 ... 생일 축하해.

순호가 선물 상자를 내밀자 지우가 받아 든다. 퍼즐 문제 책이다.

순호 곧 내 재판이 열리거든... 통화를 못할 수도 있어서. 이거 보라고
지우 감사합니다.
순호 그리고 이거...

순호,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포장지로 싸 준 것을 준다.

순호 아저씨, 가야겠다. 지우야, 잘 있어. 생일 축하하고. 또 보자.
지우 ...

순호, 집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지우 여보세요.
순호 지우야, 왜 전화해? 아저씨 바로 앞에 있잖아.
지우 5시라서 전화했어요.
순호 훗...
지우 ... 양순호 아저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순호,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다. 그런데 기분 나쁜 눈물이 아니다.
눈물을 속 닦는다.

순호 ...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 ... 진짜 간다.

지우, 순호에게 뛰어오더니 어색하게 살짝 안는다.
그리고는 다시 와다다 집으로 들어가는 지우.
순호가 걸어가는 것이 작게 보이는 지우 동네 전경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90. 지우의 집 안

지우와 현정, 얼음 깨기 놀이를 하고 있다. 블록을 하나둘씩 망치로
제거하는 게임이다. 집중하는 지우.

현정 (지우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지우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지우 (계속 게임을 하며 무심한 듯 한 특유의 말투로 엄마를 보지도 않고)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좋아...
현정 (감동한 환한 웃음.)

91. 지우의 방 (석양 무렵)

밖에서 본 지우의 달혀 있는 창문. 눈이 내리고 있다.
커튼이 열리며 창 너머로 지우가 보인다.

-방 안-

석양으로 노란빛을 띤 눈을 가만히 쳐다보는 지우, 순호가 준 선물을 포장지를 벗기면 유리병에 온통 파란색 젤리가 가득하다. 파란색 젤리가 가득 든 유리병을 쓰다듬던 지우의 손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연다. 잠시 멈췄하던 지우의 손이 창밖으로 향한다. 지우의 손에 닿는 눈. 눈이 사르르 녹는다.

지우 (자신의 손에 쌓이는 눈을 가만히 보며 첫 장면에서 읽었던 시를 읊조린다)
 지난밤에 눈이 소오복이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 주는 이불인가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나리지...

다 읽고 난 지우, 뜻 모를 미소가 돈다.
 어깨를 작게 으쓱한다.

92. 수인의 집 앞 (밤)

순호가 수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고장 난 등을 고치느라 애쓰고 있다. 옥탑방 계단을 올라오는 수인, 등을 고치고 있는 순호를 가만히 본다.

수인 ...

다 고친 순호, 등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몸을 돌리면 수인을 발견한다.

순호 ...
 수인 ...
 순호 ... 나 변호사 그만 뒤야 할 것 같아.
 수인 들었어.
 순호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인 ...
 순호 근데... 하나 확실해 진 게 있어.
 수인 ...
 순호 니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
 수인 ...
 순호 저녁 먹었어?
 수인 아직...

순호 우리 집에 가서 먹자. 아버지한테 너 소개하고 싶어.
수인 ... 그래!

수인의 대답에 활짝 웃는 순호의 모습에서 스톱모션.
화면 서서히 어두워진다.

-끝-